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 ☎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3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오는 11월1일 부터 정기 예산종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각 종단마다 내년 예산편성이 한창이다. 국회도 내년 나라살림을 살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마련은 기본요건이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살피면 무슨 일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을 규모있고 효용의 극대화를 기해 짜기만 해도 한해 살림을 잘 살 수 있다고 내다봐도 좋겠다. 이를 위해 부처님과 조사들이 제시한 재물 다루는 법부터 새겨본다. 〈편집자 주〉

먼저 해야 할 일은…

만일 노력하여 재산을 얻으면 항상 넷으로 나누어야 한다. 첫째 4분의 1은 의식주를 위하여, 둘째 4분의 2는 그것을 자본으로 이익을 얻으며,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하여 액운을 대비해야 한다. 〈선생자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주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지않는다면 불행해지고, 재산에 파재도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주어야 할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주어서는 안될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불행을 만나거나 재난에 파재도 도와줄 친구가 있는 법이다. 〈본생경〉

올 때도 한 물건없이 왔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나이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거늘 다른 이의 재물에 마음을 둘까 보냐. 살아 생전 아무리 많이 장만해도 죽은 다음 가져갈 것은 자은 업뿐일세. 〈자경문〉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로 제몸을 묶어 피안으로 건너갈 생각을 않는다. 재물과 애욕에 몸들어 남을 해치고 또 자신을 멸한다. 〈법구경〉

무슨 일이나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될 우선순위를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에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본생경〉

가난한 이가 와서 달라고 하면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 한몸처럼 두루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참 보시이며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한몸이다. 반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아닌가. 〈선가구감〉

법에 따라 얻어진 재물로 부모를 모셔라. 바른 상도의로 장사를 하라. 힘써 노력하여 늦도록 알하는 재가자는 죽은후에 '입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 속에 태어난다. 〈이함경〉

조계종 97년예산 불교회관등 편중

포교·교육 '위축우려'

50억규모 신규 사업계획 차기 종회서 논란일 듯

조계종이 특별한 세입증가 방안없이 내년부터 불교회관건립,승려복지제도시행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본격추진하면서 단체지원금과 사업,행사비를 대폭 삭감할것으로 보여 종단 지원 비중이 큰 포교와 교육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내년부터 △불교종합회관건립(30억원) △승려복지제도시행(10억원) △전산화작업(2억원) △교구 보조금(7억원)등 약 50억원규모의 신규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기위해 불필요한 지원금과 행사위주의 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조계종 기획실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사업을 중단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했다. 특히 기획실이 검토한 예산안 가운데 포교원과 문화사회부, 교육원이 가장 많은 예산삭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조계종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예산 1백3억원에서 관람료인상(10억원)과 사찰부동산처분 전입금(10억원), 약간의 중앙분담금 증가 등 약 25-30억원이 상승할것으로 예상되고있어 중점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약 20억원가량을 기존의 예산에서 확보해야할 상황이다. 이것은 1억원 규모의 사업 20여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지원과 행사진행을 주업무로 하고있는 포교원과 교육원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을 주관하고있는 기획실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면 종무행정에 어려움이 없을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편성될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은 11월1일 개회되는 제123회 중앙종회에서 포교와 교육의 예산 삭감에 따른 지적이 있을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엽 기자〉



'21세기 불교의 길' 지난 24일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한 초대형 국제학술회의가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참석, 미래신행의 좌표를 제시하는 실용적인 학술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해인골프장 사업취소 마땅"

서울대 교수 3백명 서명 청와대등 제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는 문화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 귀중한 문화재는 어느 특정 기업, 지역과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과 후손의 자산이다."

서울대교수 3백명이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을 했다. 권순국(농공대) 호문학(법과대)교수 등 3백여명은 서명과 함께 해인골프장 반대의 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정부기관과 관할관청인 경상북도의 경북 성주군 고령군 그리고 사업장인 가야개발에 보냈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교수사회에서 서명을 통해 의사를 밝힌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교수들은 의견서에서 호국정신이 결집된 역사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팔만대장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장경보존은 특정지역 또는 종교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교수들은 또 해인골프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골프장 건설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굶주리는 北동포 방관말자"

월주스님 시국성명…무장공비 침투 사과 요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2일 총무원에서 최근 잡수함을 이용한 무장간첩침투 등 일련의 시국사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해와 냉해로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과 관심이 중지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스님은 또한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도발과 만행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간 대화를 급속히 냉각시킨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족앞에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1차교육이 열기속에 진행되고 있다.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현재 2차~5차 접수중)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 · 광주 각 30명) 1회당 30명씩 배정.
◇교육 장소
· 삼보컴퓨터 교육센타
-서울 : 구로구 신도림동 338 남부대일학원 2층 (신도림 전철역)
-부산 : 동구 초량3동 1163-2 부산삼보컴퓨터 사옥 2층
-광주 :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문의 :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협찬: 삼보컴퓨터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정				
		1차(서울)	2차(서울)	3차(서울)	4차(부산)	5차(광주)
windows 기본	10:00~17:00	11. 16(토)	11. 23(토)	12. 14(토)	11. 9(토)	11. 23(토)
인터넷 기본	〃	11. 23(토)	11. 4(월)	12. 15(일)	11. 10(일)	11. 24(일)
인터넷 중급	〃	11. 30(토)	11. 18(월)	12. 16(월)	11. 11(월)	11. 25(월)
인터넷 고급	〃	11. 30(토)	12. 2(월)	12.17(화)	11. 12(화)	11. 26(화)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자은스님 ◇백산스님 ◇성육스님

동참해주신 분

△자은 하와이 불은사주지: (2구좌) △백산 묘충사주지: 사천 남양주 · 삼천포중(2구좌) △성육 옥천사주지: 고성 고성여고 영천중(2구좌) △서해스님: 용남중 용남고(2구좌) △자현스님 外 5명: 안성여중 안성여고(4구좌)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신도회: 마산고 마산공고 마산중앙고 창원문성고 중앙고 창원여고 반림중 마산여고 마산제일고 가포고 창원고 창원창신고 창원경일고(13구좌) 〈10월17일 현재 총 513구좌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100호 특집 인터뷰 조계종 월하스님 3면
화성 신흥사 청소년 인성수련대회 15면
기혼불자 108명에 듣는 '성 윤리' 2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많은 바, 한 지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셨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사 설

조계종 3대사업 어디로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가 주요 사찰의 종무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않은 문제와 과제가 표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물적 시설의 확장 등 외형적인 가람불사에 밀려 포교와 교육에 관한 불사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큰 화두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종무감사는 내년 사업설계를 위한 좌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 포교, 도제양성, 역경이라는 종단의 3대 사업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3대사업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도제양성과 역경사업을 통해 포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체계, 포교체계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종단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은 요원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종단의 사업목표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부대중이 깊이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아울러 차제에 이에 따른 종책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종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교·도제양성·역경이라는 종단의 기본 3대사업에 걸맞은 예산이 배정되고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산업사회이고 시장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불사를 이루는 데는 많은 물질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강원, 선원, 불교대학 등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과 포교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원·포교원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고, 새로운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전은 이미 종단개혁과정에 논의되었고, 개혁종단의 목표로 설정된 바 있다. 종헌종법상으로도 총무원과 나란히 높은 위상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직, 사업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이 대단히 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종단의 중앙행정기관과 본말사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재 양성과 포교불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본말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현실적인 생존경쟁의 아귀다툼 속에서 병들고 아파하는 중생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사찰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포교와 교육사업을 펴 나아가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포교·교육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종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어두움에 등불을 밝혀야 한다. 산사나 도시의 거리마다 불교교양 도서실이 세워지고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메마르고 지친 중생들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공장지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것을 갈구하는 지식인들에게 자비와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아쉽다.

이번 주요 사찰의 종무행정감사를 계기로 오는 11월1일부터 열릴 예산종회에서 포교와 교육분야의 종책이 종단 사업의 중심부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믿고 싶은데…

협찬 자비의 전화
회장 정덕
TEL(02)737-7378

열 린 마 당

2달여동안 숱한 화제를 뿌리며 지난 22일 막을 내린 MBC 드라마 '애인'은 그동안 달라진 우리사회 기혼 남녀의 성윤리가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드라마 '애인'의 상업적 성공은 무엇보다도 기성층의 일부는 안정된 가정과 애인을 동시에 갖고 싶어한다는 잠재된 심리를 담아냈기 때문이라는 사회 전반의 분석이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령 1백호를 맞아 드라마 '애인'을 통해본 '기혼불자 성윤리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23일 서울 경기 인천지역 불자 108명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문화원 부설 한국불교리서치에 의뢰 전화 조사했다.

〈편집자 주〉

현대불교 100호 기념 한국불교리서치 의뢰조사

기혼불자 108명에 듣는 '성 윤리'

이번 조사에 응답한 108명 불자들 과반수는 기혼남녀의 이성교제를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또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더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남성이 28.6%로 여성의 21.2%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는 30.0%가 '불륜이므로 살수 없다'고 답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반응했으며 50대(28.6%), 40대(26.1%), 20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66명(61.1%)이 여성 응답자이며 남성은 42명(38.9%)이 응답했다. 또 응답자중 20대가 41명(38.0%) 30대가 30명(27.8%) 40대가 23명(21.3%) 50대가 14명(1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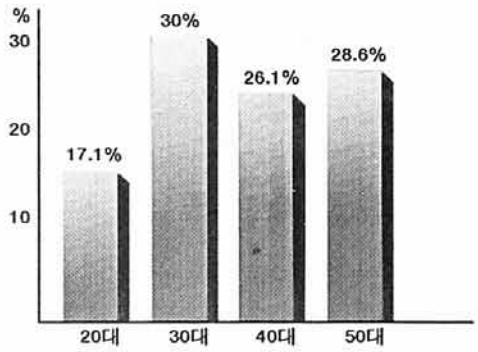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1) 만약 불자님의 가정에서 드라마 '애인'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 )
① 정신적 사랑이라해도 불륜이므로 더이상 부부의 연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본다.
② 불륜이지만 가정파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③ 일시적인 실수일 수도 있으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
④ 원인을 찾아 대화로 원만한 해결 모색

2) 왜 드라마 '애인'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 )
① 사회 전체의 도덕성 실추
②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우리사회의 성숙
③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부부성모럴
④ 개인의 선천적 바람기 또는 호기심

3) 유부남·유부녀의 외도 또는 사랑이야기가 드라마로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한 불자님의 견해는? ( )
① TV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사의 지나친 상업주의 이므로 시정돼야 한다
② 대중문화의 저급화를 부추기지만 대다수 시청자가 원하므로 어쩔 수 없다
③ 사회변화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

4) 기혼자의 이성교제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
① 가능하다
② 있을 수 없다



'애인' 같은 일 생기면 "이혼한다".

이성교제 인정 '여성이 더 개방적'

"정신적 외도도 이혼" 男28.6% · 女21.2%

"불륜소재 드라마 사회현상이다" 51.9%

(75.9%)는 의견이 이혼하겠다는 의견에 비해 월등히 많아 일시적인 외도라면 이해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이성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6%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44.4%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기혼남녀의 58.5%, 30대 50.0%, 40대 60.9%, 50대 50.0%가 이성교제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9.1%가 이성교제가 가능하다고 답해 50.0%가 가능하다고 답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여성이 기혼자의 이성교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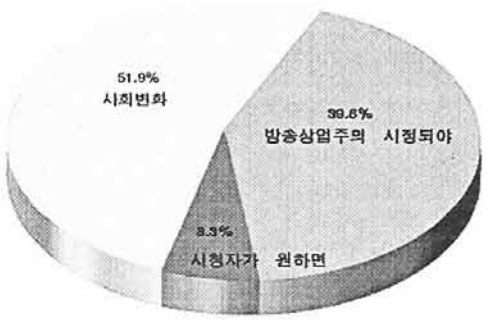
자신의 가정에서 드라마 '애인'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정신적 사랑이라해도 불륜이므로 부부의 연을 지속할 수 없다'는 대답이 전체 중 24.1%로 나타났는데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불륜이므로 살 수 없다'는 의견은 남성이 28.6%로 여성의 21.2%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는 30.0%가 '불륜이므로 살수 없다'고 답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반응했으며 50대(28.6%), 40대(26.1%), 20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은 '가정파탄이 안가도록 하겠다' 16.7%,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 23.1%, '원인찾아 해결모색하겠다' 36.1%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불자기혼자는 배우자의 일시적인 외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드라마 '애인'같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부부 성모럴'(30.6%)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30.6%)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전체의 도덕성 실추때문'이라는 의견도 28.7%나 있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다양한 가치공존(43.9%, 30.3%)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반면, 40대는 변화하는 부부모럴(97.8%) 50대는 사회전체 도덕성 실추(42.9%)라고 밝혀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 또는 사랑이야기가 드라마로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변화의 한 현상이라는 대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방송상업주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대답도 39.8%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성윤리 및 결혼관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부남·녀의 외도 드라마 공론화에 대한 견해.



◇드라마 '애인'의 한 장면.

전문가 의견

정신과전문의 이근후박사

부부관계란 각기 다른 가족문화에서 성장한 성인이 결혼이란 의식을 통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생활이 허용되는 관계를 맺는다. 물론 성관계 이외의 친밀감과 신뢰등 많은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우선하는 관계를 요구하고 요구받지만 그 가운데 성관계만은 누구에게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철저한 배타성을 지닌다. 간통은 성관계 여부의 증거를 두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근자에 와서는 부부간 이외의 대상과 친밀감이 부부

"항상 부부대화 통해 신뢰·친밀감 높여야"

보다도 더 밀접할 때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관결이 나오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마음속엔 '애인'류의 이성친구와 사귀고 싶다거나 사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하지 말라." 이때의 음행은 사음으로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에게 음행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퇴색되겠는가. 부부는 이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깊은 신뢰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서로의 노력이 없이 간통이 나쁘다(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탓만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폐이다.

화엄사 서오층석탑 부처님사리 친견회향대법회 및 10만등불사 점등식



초대의 말씀

삼가 맑은 차 한잔을 올리며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화엄사 서오층석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부처님 진신사리 22과와 신라시대 경전을 사경한 지류뭉치등 16종 72점의 국보급 성보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1년여 동안 불사리에 대한 예경과 찬탄을 위하여 전 불자의 신심으로 친견법회와 사리봉안을 위한 10만등 불사를 봉행해 왔습니다.

법등은 어둠과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며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을 밝혀 참된 불법을 보게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짙은 단풍으로 물든 계절에 찬불의 문화축전과 10만법등의 촛불을 밝히는 거룩한 회향의 자리를 마련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께서는 불연의 공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96년 10월

지리산 화엄사
주지 종열 합장

부처님 사리친견회향 대법회 및 10만법등 점등식

제1부 : 사리친견회향 대법회
1996년 11월 5일 오후 1시~2시
본 법회는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큰스님 그리고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허경만(전남도지사)·양성철(구례국회의원)님과 각급기관장 신행단체장 및 사부대중을 모시고 사리친견법회 회향식을 봉행합니다.

제2부 : 찬불문화행사
1996년 11월 5일 오후 2시~4시
이 문화축전은 정종준(KBS탤런트)님의 사회로 김영재(전남대교수)·안숙선(국립창극단 지도위원)·진유림(무형문화재 승무27호이수자)·차금순(남도국악학원장)·한정하님외 국악인 20여분을 모시고 남도민요/해금합주/승무/판소리/살풀이 등을 공연합니다.

제3부 : 10만법등 점등식
1996년 11월 5일 오후 5시~9시
이 점등행사는 점등의식과 화엄불교합창단의 합창과 탑돌이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사리친견 및 봉안을 위하여 모두의 신심과 정성이 담긴 10만법등의 촛불을 밝혀 지리산의 가을 단풍과 함께 화엄의 연화장 세계를 이루고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0664)782-7600 전송(0664)782-7601

현대불교 지령 100호 특별 인터뷰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

남 속이지 않는 삶 '무소유의 시작'

이랫 마을과 평균 9도의 기온차이가 난다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추색이 완연하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경내 정변전(正徧殿)은 만추의 쪽빛 하늘을 이고 있었다. 본지 지령 100호를 맞아 종정스님 특별대담에 나선 지난22일 기자의 시선을 가장 먼저 잡은 것은 정변전 한 귀퉁이에 가지런히 쌓아 모아져 있는 불교계 신문들이었다. 종정스님은 불교계 신문이 부처님 모습과 소중한 가르침을 담은 것이라며 이렇게 따로 모았다가 더이상 보관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태운다고 시자스님이 귀띔한다. 불교언론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또 불교언론을 대하는 독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헤아리게 한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축하 휘호



"마구잡이 환경개발 원천봉쇄 해야 합니다"

언론은 건전한 대안 제시해야 '사회의 목탁'

—스님, 지난해 본사에서 주최한 방강스님 친견법회 이후 1년여만에 뵙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년 법어를 통해 남을 이롭게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살이를 하면서 스님 말씀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굳이 뜻풀이를 하자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남속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사는 것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게 왜곡되지 않게 행하라는 것이지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모아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지요. 물론 가진것이 많아 베풀어 주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아마도 더 어려운 일일게요.

—무소유를 가르치시며 1발1의로 평생을 사신 부처님의 제자로 어떻게 부처님을 닮을까가 여간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세속에서 생활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무소유정신을 실천해야 하는지 일러주십시오.

▲무소유는 출가 수도인들이 할 수 있지, 보통의 재가자들은 달리 이해해야 할 것이지요. 더구나 세상 구조가 "주먹을 도끼삼아 설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할 정도로 각박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생활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것을 무소유의 잣대로 삼으면 될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다는 것은 물질이 넉넉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할 때 진정 넉넉한 것이지요. 그것은 쉽게 말해 남보기 급급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면 될것입니다.

—최근 사찰들은 지역개발 바람에 환경훼손이 심각합니다. 지자체 실시이후 더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데요. 사찰 수행환경과 지역개발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 현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이 정신을 황폐화해가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종토세 토초세니 하는 사찰세금부과 문제등을 보아도 참으로 민족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합니다. 더욱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일제때도 언감생심 발상조차 못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어떤 명분의 개발이든 사찰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하며, 이를 위해 책임자들을 설득시켜 어떻게 지켜보시는지요.

▲개혁종단이 舊 체제와는 달라지려고 애쓴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틀을 잡는데 노력을 기울이고는 물러나와야 합니다. 틀잡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끌고가기까지 하는 것은 수행인의 근본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 소리도 나오는 것이고, 종도들도 별 신명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 무장공비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통일논의는 뒷걸음질 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장공비 사건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노출시킨 것으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불교가 국민심성과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종교적 기능 뿐만 아니라 현재 자랑스런 유적지와 문화재가 바로 환경을 지켜온 사찰이라는점을 일깨워 주어야 합

법회 안내

광도사(02)979-5183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경전읽기 매주 금 오전10시

약수사(051)555-4332
인등법회 1~3일(음)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영주암(051)754-2210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육바라밀 매월 6일(음) 오전10시
연등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대인정사(0334)675-7707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사경기도 18~24일(음) 오전10시
반야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공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보현사(0391)42-9437
일반법회 1·15일(음) 오전10시

등명락가사(0391)44-5475
일반법회 1일(양·음) 오전11시

화엄사(0392)33-5827
통합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관음사(0392)33-2688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일반법회 3·15일(음) 오전10시

사문선원(0394)31-3125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대원사(0394)33-2603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삼락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 매월 22일 오전11시

보리원(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가족법회 마지막주 일 오전11시

다보사(0613)34-4201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천진암(0685)92-0533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 박성배 교수

"한국불교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개인과 불교전체, 그리고 사회에 불교의 근본씨앗을 심고 가꾸려는 노력을 계속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 69년 미국에 건너가 불교학을 공부하고 현재 미국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성배 교수는 지구촌 시대에서의 한국불교 세계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신비주의적인 논리로 불교를 알리려 한다면 세계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세계화는 곧 무상·무아의 근본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고와 논리적 전개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교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세계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의 신도도 많이 늘고, 사찰 시설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 한국불교의 발전상에 매우 흡족해 하는 박교수는 그러나 "예전만큼 강한 구도열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며 우리의 훌륭한 수행풍토가 사라져감을 아쉬워 했다.

"불자 모두 불법씨앗 되어야죠"

내년 3월 동대서 강의

박교수는 내년 3월부터 동국대 강단에 설 예정이다. 동국대가 1년간 석좌교수로 초빙하고 박교수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체용(體用)논리와 돈점(頓漸)논쟁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강의도 신명나게 하고, 그동안 썼던 논문들을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고국에 선보이고 싶은 진정한 불교학도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동대 학술회의서 만난 두 석학



독일 레겐스부르그대학 슈바르츠 교수

"서양도 연기사상 받아들여야"

참가자중 유일한 신학자

한스 슈바르츠 교수(독일 레겐스부르그대학 신학)는 이번 동국대 국제학술대회 참석자중 유일한 신학자다. 그러나 그는 불교사상이야말로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서양에서는 불교를 새로운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사상은 기독교 등 서양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조화의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의 자연관은 현대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자연을 창조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보는 반면 서양에서는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젠 서양에서도 불교의 연기사상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비단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며 인류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나, 불교는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 슈바르츠교수는 서양은 바로 이러한 불교적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바르츠교수는 신학자답게 불교와 기독교와의 상호존중을 통한 다각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명우 기자

교차로

"인터넷에 자료올려 불교국제화 추진"

조계종 불학연구소 소장 밀원스님



지난 22일 조계종 불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밀원스님(적조암 주지)은 "교학연구와 역경사업에 주력하면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에 불교관련 자료를 올려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74년 자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공군사관학교 군종실장을 역임했다.

군위로금 2천만원 전달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사진위)은 지난 23일 1군사령부를 방문, 설정스님(종회의장)의 위로금 1천만원을 포함 2천만원을 전달했다.

평불협 임시총회 열어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스님(은해사 주지)은 오는 11월1일 오후 5시 동보성에서 평불협 임시총회 및 출소 2돌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대불청 강원 청년대회 참석



원행 삼화사 주지는 대불청 강원지구 12개지회가 지난 20일 원주시 치악멸공훈련대 운동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불교청년대회에 참석, 설법하고 격려했다.

상계동에 보현사 신축 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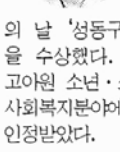
일관 조현사주지는 오는 27일 개원 13주년을 맞아 노원구 상계동에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 기공식을 갖는다.

청담문화재단 설립



동광 도선사주지는 오는 11월15일 청담대종사 열반 25주기를 맞아 '청담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성동구민대상 봉사상 수상



법경 능인정사 주지는 지난 26일 성동구민회관에서 제3회 성동구민의 날 '성동구민대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양로원 고아원 소년·소녀가장 돕기로 사회복지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6일 다보법회서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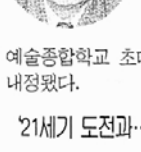
송병욱 불교방송 총괄상무(해군통해사주지 법사)는 오는 11월6일 다보법회에서 설법한다.

'신동춘 전집' 출판기념회



신동춘 전 한양대교수는 오는 31일 '신동춘 전집' 출판기념회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연회장에서 연다.

예술종합학교 초대미술원장



오경환 동국대 교수(56·미술학)는 오는 97년 3월 개원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미술원장에 내정됐다.

'21세기 도전과…' 번역 출간



연기영 동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지난 18일 각국의 '21세기의 도전과 전략'을 밀알출판사에서 번역, 출판했다.

"종파 초월 일불제자 운동 전개"

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추진위장 손현수씨



"각 사찰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산악회가 결성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정착돼 있습니다. 이들 각 산악회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재창출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현수(67. 대현실업회장)씨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산악회의 전국조직망 구축에 전심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여년을 한결같이 아차산을 오르며 부처님법 실천에 앞장서 온 손현수위원장은 또 "종단을 초월한 일불제자 운동을 통해 각 산악회간의 이해관계 및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않는 순수한 재가 신행결사단체로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 감정해소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손현수 위원장은 각도지부 산악회가 중앙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원을 확보해 내년 4~5월경 창립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게시판

행사 하루찻집=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는 오는 11월3일 종로1가 샘터찻집에서 제2회 하루찻집을 연다.
(02)738-5973

하루찻집=성남불교산악회(회장 임선교)는 오는 11월9일 성남 단대동소재 하나다방에서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마련한다.
(0343)46-3871

화촉 불교TV 이인성PD가 오는 11월2일 오후 3시 서울 해군회관 본관에서 신명진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복지법인 보리수마을 개원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마을(이사장 시현) 개원법회가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 보리수마을 주차장에서 봉행됐다.

보리수마을의 개원법회에는 총무원장 월주, 교육원장 원산, 중앙종회 부의장 일면,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을 비롯 황명수 동대총동창회장 이헌수 동양샷시대표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성라실버타운 원장취임 및 입주식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이사장 법성)성라실버타운 원장 취임 및 입주식이 지난 24일 경기도 가평 성라실버타운 소극장에서 봉행됐다.

총 3개동 96실을 갖추고 있는 성라원 원장으로 정덕스님(자비의전화 회장)이 취임한 이날 행사에는 보리수마을 이사장 시현, 길음복지관장 제원스님을 비롯 이현직 가평군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개인택시 불교 정법회 10돌행사

대구직장불교협의회의 소속단체인 개인택시 불교정법회(회장 김주본)가 지난 20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주지 무공스님, 직불협회원, 정법회 가족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동참하여 정법회의 탄생 10돌을 축하했다.

생활 속의 불교 ⑨⑤

주연 배우만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 가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육신의 삶은 생·로·병·사의 테두리 속에 있고 정신의 삶은 울고 웃는 오욕칠정의 연쇄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철을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고도 한다. 길을 떠나 여기 저기 떠돌다가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잠자리를 구하는 나그네의 삶과 진배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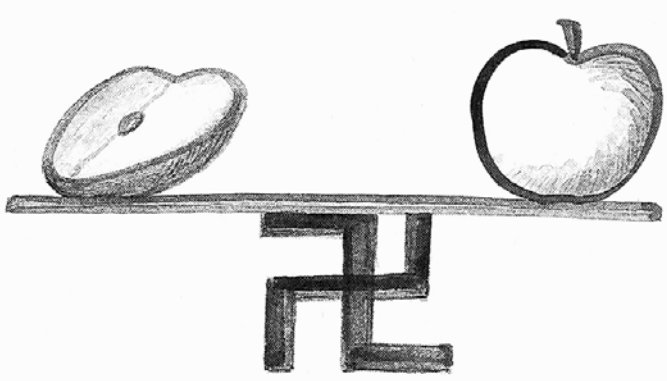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점을 선듯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떠돌다 가는 나그네 일까보냐 한다.

삶의 구석을 들여다보면 인생역정은 참으로 복잡하다. 발걸음 걸음마다에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마치 바늘 땀을 뜨듯이 점철되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저 날이 새고 지는게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욕정 때문이라는 말을 할 정도에 이른다.

나아가 우리는 삶의 마디마디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명패도 붙여보고 높낮이도 매겨보고 우열을 갈라보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찬사와 지탄, 박수와 외면, 존경과 멸시 같은 부상(副賞)을 곁들여 주기도 한다. 그렇게해서 우리들의 삶은 서로 비슷비슷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천차만별 가지각색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채색된다. '위대한 아무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필부필부도 그렇게 정의되어 버린다.

도리를 깨우쳤다는 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한낱 뜬 구름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거만(巨萬)의 부를 쌓았다해도 그 부는 물거품이 되고 경국지색의 미모라 해도 그건 환상 속의 허깨비 놀음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 모두가 다 한 철 나그네의 들놀이 같은 것이요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다가 땅거미가 찾아들면 제가끔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나온 도리를 알고 갈 곳을 보는 선사들의 말이 그렇다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선사들의 대답은 이러하다.

'그건 연극배우의 연기와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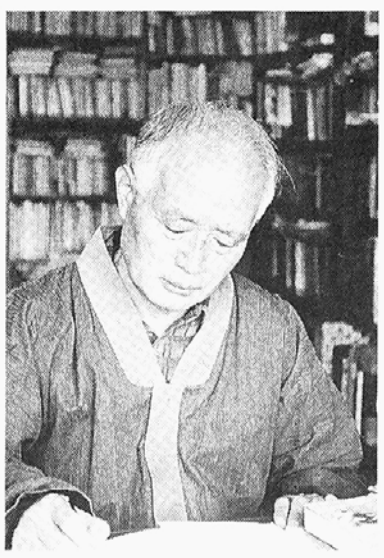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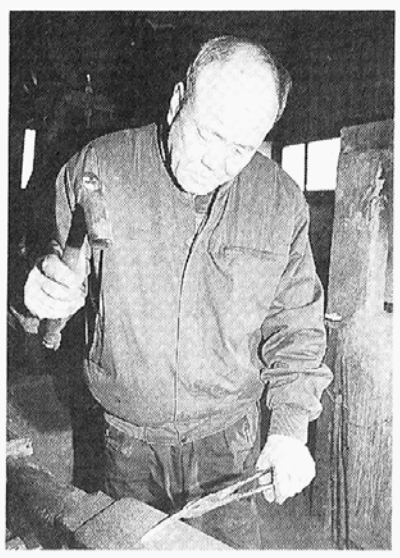
연극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일단 무대에 올라간 이상 배역을 탓할 수는 없다. 그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오로지 전심전력을 다해 맡겨진 배역을 충실히 소화해내는 것 밖에는 없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번듯한 역할을 희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지 역이 되었든 왕의 역할이 되었든 한 막 연극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배우들은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소화해 낸다. 그게 배우다운 삶이요 명배우의 모습일 것이다. 선사들의 대답은 바로 그점을 암시한다.

TV 연속극을 보노라면 주연급 보다는 조연배우의 연기가 더 돋보일 때가 있다. 인기 드라마의 여러 장면에서 때로는 조연이 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조연배우가 제 역할이 싫다고 대충대충 넘어가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 박수는 커녕 실직이 그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배역을 받는 입장에서는 출발부터 비중있는 역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주연급에 캐스팅되지 못한 것을 실패요 얼등이라 할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배역일 뿐이다. 그걸 실패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불법은 이렇게 가르친다.

실패한 배역에도 박수는 있다고.

협찬 : 임경순·강금순




"일과 하나되면 마음에 여백 생겨요"

'산문밖의 선'은 어떤 것인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 산문 밖에 살며 자신의 일에 혼신을 불어 넣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몸도 잊고 마음도 잊어버린 곳에서 영근 하나의 열매가 있다. 그 열매야말로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숙성된 체험의 소식이리라.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느 곳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 禪悅이라 할때 '산문밖의 선'은 선과 생활을 구별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따질 필요가 없다. 지령 1백호를 맞아 산문밖의 화두와 깨달음의 열락이 엮어낸 '어록'을 새겨본다. 〈편집자 주〉

산문밖의 禪

100호 특집 語錄모음

김응현(서예가): 깨달음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박준수(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마음속의 박준수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박희진(시인): 수행 잘해서 부처 되는 것과 시 잘 써서 '시인부처' 되는 것은 같아요.

조무송(배우): 내 작품은 아픔의 산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야 하고 그걸 받아 들여야 합니다.

서능욱(바둑프로기사): 바둑알 한알 한알이 모두 승부수이고 유혹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할 때 좋은 수가 나옵니다.

서세옥(한국화가): 지금도 붓 잡으려면 호랑이를 만나는 심정이야. 잡아 먹히느냐 때려 잡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이지.

김영동(국악인): 음악 만드는 일이 참선이고 선율은 선방입니다.

조상원(현암사 설립인): 일에 열중하다 보면 기적이 온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겐 기적이 없다.

조문호(사진작가): 카메라를 통해 대상물을 들여다 보는 순간의 긴장감과 셔터 누르기 직전의 고요, 셔터를 누르는 찰라의 영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선객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황혜성(궁중음식연구가): 음식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것. 공양정신이 있어야 제대로 음식 만들 수 있어요.

김용림(탤런트): 장거리를 뛰는 선수 마음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내 가지면 스타가 되고 명예와 상이 오는 것이지 명예나 상이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김동현(문화재보존과학연구실장): 저 석탑은 혼자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돌맹이에 생명을 불어 넣은 장인의 영혼이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갑(조각가): 오늘의 작가는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병관(역도 국가대표): 내가 없으니 바벨 너조차 없구나

이외수(소설가): 붓으로 하여금 나를 쓰게하여 나도 없고 붓도 없는 자리에서 파천일성의 쾡하는 순간에 학 한마리가 날아 오르고 메기 한마리가 여유자적으로 물밑을 노니게 해야합니다.

조찬형(사찰창호 소목장인): 일을 할 때는 아무 생각도 말아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 일을 집어치워라.

임효(한국화가): 흙은 진실합니다. 누르면 나오고 파면 들어가고 이 흙으로 마음에 걸림없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육명심(사진작가): 참선은 즐겁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열린 시간이며 우주로 시야를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안광석(전각가): 마음이 가는대로 철필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이 아니고서는 어렵지요.

박계향(판소리명창): 미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곽훈(설치미술가): 시간과 소리의 보이지 않는 형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태춘(가수): 내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해탈할 수 있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정문(만화가): 나는 내 만화의 주인공을 통해 불교를 배우고 수행합니다.

"학춤 출때는 학이 되고 승무 출때는 선사가 되려 합니다"

"공양정신 있어야 제대로 음식 만들죠"

이영희(무용가): 내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나로인해 결정되고 나로인해 새로 설 수 있음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봉준(석공예가): 돌 속에서 돌을 빼내는 것이 내 일입니다. 쓸데 없는 돌을 다 빼내고 남는 것, 그것이 나의 작품입니다.

김갑수(배우): 만해스님 역을 맡아 삭발할 때 드디어 내가 만해가 되는구나 하고 느꼈던 벅찬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장공익(돌하르방 명장): 하르방에 혼을 집어 넣는 일을 내 생전에 한번이라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은구(도예가): 흙을 다져 그릇을 빚고 가다듬는 것은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빚고 가다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만익(화가): 나의 자화상은 나의 그리움이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박동춘(茶人): 아무리 훌륭한 차라도 그것을 음미하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진정한 차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박용기(BBS방송위원): 사는 것은 동양화처럼 여백이 있어야해. 요즘은 어떻게 된건지 빽빽한 서양화처럼 살려고 하거든. 마음을 비워야지. 빈칸이 많아야지.

김상렬(연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연극입니다. 저 텅빈 무대를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두려움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박재동(시사만화가): 날마다 하나의 화두를 풀기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후 마감 시간까지 그날의 만평 주제를 풀기위해 골몰하는 겁니다.

장호순(대목): 일에 혼을 불어 넣으며 법당을 짓는 동안은 내가 법당이 됩니다.

김덕명(한량무 예능 보유자): 학춤을 출때는 학이 되고 지성승무를 출 때는 선사가 되려합니다.

최기철(민물고기연구가): 물고기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자신에게 정해진 몫에 충실합니다.

권영진(무형문화재 毛筆匠): 사람들 가슴에 맺힌 세상의 패를 말끔히 씻어주는 붓을 만드는 것이 평생의 화두입니다.

전수천(설치미술가): 부분에 집착하면 전체가 되지 않고 전체에 집착하면 부분이 허술해 집니다.

박민선(썬웨이보일러 회장): 보일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술적 환경적 조건이 조화를 이뤄야 파란 불꽃의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의 눈부심이 바로 깨달음의 환희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해주(양복사):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느냐에 양복의 질이 결정돼요. 세상일도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이성옥(돌안경 제작자): 돌은 오묘합니다. 산란하거나 고요한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무념무상이 아니면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생강(대금명인):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불었습니다. 50년을 불고나니 1등도 꼴찌도 없더군요.

묵계월(경기민요명창): 내가 부르지 않은듯 잘된 소리, 그 부분이 내가 소리가 되어버린 대목이지요.

이기동(합죽선 무형문화재): 지극정성 공력들인 것 없이 작품 좋기만을 바라면 그게 바로 도둑놈 심보야. 나는 이 일을 놀이처럼 즐겁게 해.

전우익(수필가): 나무는 가물어야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을 배웠지. 그런데 사람은 악조건을 거부하고 개발을 하거든. 개발하고 대체시키며 인간은 약해지고 있어.

김을생(목기명인): 남이 본다고 잘하고 안본다고 대충대충 하려 말고 본성에 따라 해야지.

"최고 연주자가 되고 싶었는데 50년 불고나니 1등도 꼴찌도 없대요"

"들꽃세상엔 다툼도 뽐냄도 없어요"

김천흥(궁중무명인): 내 마음이 춤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의미없는 몸짓에 불과해. 한동작 한동작을 넘기는데 온 마음이 비어 있어야해.

윤경렬(향토사학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말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야.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 좋은 시골 아낙네, 익살맞은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지.

박원순(변호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세속법을 부처님 법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의 전달자로서 늘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수(판화가):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여백을 충분히 살립니다. 여백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반조해 봅니다.

박희선(공학박사): 무념무상에 들면 능력이 탁월해지는데 이경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과학적 방법은 없을까.

김형석(아구선수):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화두를 꽉 잡고 있습니다.

조훈현(바둑프로기사): 부동심을 갖느냐 못갖느냐가 반집차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신영훈(목수): '이 뭣고'는 집짓는 일뿐 아니라 모든일에 통하는 방법론입니다.

윤재근(문학평론가): 나를 사양하고 끊어 오르는 욕망을 사양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선수행이죠.

정영진(대목장): 작업을 끝내고 나면 그 일이 잊혀지질 않아. 더 큰 아름다움을 생각하기 때문이지.

곽흥수(프로골퍼): 넓은 그린위에 나 혼자만 서있을뿐 어떤 움직임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계진(아나운서): 항상 변화하는 모습 보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정형식(일양약품 회장): 경영이란 화두, 만생명의 절대자유를 보이신 부처님 통해 풀어 갑니다.

진홍섭(미술사학자): 안다는 것에 대한 냉혹한 비판과 질타가 필요합니다.

김양동(서예가): 깨쳤을때 뇌리를 스치는 것은 섬광이듯 삼라만상은 해를 닮아 가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는 부처가 되려는 것이죠.

강선영(태평무 명인):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손짓 하나 발짓 하나로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때 살아 있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국진(금속활자 장인): 옛날 그대로의 획과 필선들을 훼손된 부분까지 꼭같이 만들어 내는 일이 쉽진 않지만 누군가 해야 하기에 하고 있지요.

김선원(고서화감정인): 옛 사람의 슬픈 글을 보면 나도 슬프고 취해서 쓴 글을 보면 나도 취합니다.

김태정(아생화연구가): 들꽃 세상엔 다툼도 뽐냄도 없습니다.

김정기(문화재위원): 오랜 세월을 견뎌온 유물 처음 만날때의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정식(도예가): 가마에 작품을 구워내는 동안의 긴장에서 초연해 질 수 있어야 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도 쉽지않죠.

최완수(간송미술관 학예실장): 견성이란 어떤분야에서건 정점에 다다르는 것이지요. 산꼭대기에 오르면 모든 계곡과 능선이 보이듯.

박상훈(사진작가): 마음속 렌즈로 세상을 볼때 풍경삼매에 빠져요.

한봉덕(화가): 나에게는 캔버스가 도량입니다. 그 앞에 앉으면 잡념은 사라지고 그린다는 일념만 남지요.

신명식(벼루장): 돌과 일심이 되지 않으면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홍정수(드잡이): 귀신같이 복원된 문화재를 보면서 나의 불심도 드잡아 올립니다.

이근후(신경정신과의사): 무소유는 정신건강의 명약입니다. 구법의지로 치료할때 효과 큽니다.

김경욱(양궁선수): 시위에서 화살이 떠나기 직전의 마음이 편해야 명중율이 큽니다.

서영석(해부학자): 세포속의 전달체계 숙제풀면 전생도 볼 수 있어요.

박준주(단청장): 돈과 환경에 집착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홍영춘(삼일사 대표이사): 주인공에게나 자신을 맡기며 인간중심의 경영을 하면 기업은 튼튼해 집니다.

김충렬(철학자): 하늘과 부모의 은공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마지막 원력입니다.

권오수(예복전문가): 고객을 대하면 첫인상에서 어울릴 색상과 디자인이 떠오릅니다. 개성을 잘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형구(사진작가 변호사): 길을 떠나면 자연과 만나고 자연의 순리를 모두 담으려 쉴새 없이 셔터를 눌러댑니다.

이영희(한복디자이너): 현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과거에서 앞 길을 봅니다.

김경수(여성국극인): 신세대가 좋아하는 국극 만들기가 화두입니다.

이순국(신호그룹회장): 소유하지 않는 경영이 최선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태녕(문화재보존과학자): 내 전공의 최신정보는 문화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접하는 겁니다.

奉 道詵寺 주지 진산식 안내 祝

귀의 삼보하옵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하시는 사부대중께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호국참회기도도량인 삼각산 도선사 주지 車東光 스님의 제13대 주지 진산식의 자리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0년 11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강당 3층

大韓佛教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제13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일동 합장

奉 淸潭 大宗師 25週忌 追慕大法會 案內 行

청담 대종사 25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0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 문의처 : 도선사
주지실 (02) 993-5002
종무소 (02) 993-3161(3)

불기 2540년 11월 1일

大韓佛教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도선사 주지 차동광 청담 문도회 일 동 합장

"匠人 우대사회 무형유산 활성"

'무형문화재 보존방법 개발' 첫 국제정책회의

比·泰 국가예우 각별…문학·영화분야도 선정

정보교류등 국가차원 보존제도 협력 합의

현재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루마니아, 필리핀, 태국, 프랑스 등 6개국 정도. 이들 나라들은 무형문화재를 선정 관리하는데 역사성이 크며 예술성과 학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무형문화재 보존방법론 개발 국제정책회의'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0개국과 독일, 영국 등 유럽 3개국, 세네갈, 모로코 등 아프리카 2개국에서 25명의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타워호텔에서 개최됐다.

무형문화재제도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특히 각국의 무형문화재보존 제도를 비교하고, 여러 국가들의 무형문화재 보존 정책 경험과 지식을 교류, 이를 위한 합리적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국, 일본, 필리핀이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제도를 비슷한 체계하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태국, 루마니아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통해 각종 무형문화재보존 활동을 펼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음악, 무용, 놀이 등을 무형문화재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은 문학과 영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직조, 도자기 등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한 '국가공예가상' 제도와 △문학, 영화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술가상'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은 '국가예술가' 선정시 대통령의 최종심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해당자는 종신연금과 사망시 국장(國葬)을 치르는 등 예우 또한 각별하다.

태국은 그림·조각 등 시각예술분야와 무용·연주 등 공연예술분야, 시·소설 등 문학분야에 대한 '국가예술가' 제도를 도입, 고전과 현대의 모든 예술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가예술가'에게는 황금기장과 영예 동관이 수여되고, 칭호부여를 위한 국가 예술가의 날 행사는 왕실이 직접 주재한다.

프랑스는 역사성과 예술성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전문성과 희귀성을 지닌 수공예가에게 '예술의 장인' 칭호를 수여한다. 동료들로부터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도 '예술의 장인'이 될 수 있는 특색이 있다.

루마니아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방차원에서 인간문화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선발기준도 지역적 전통을 가진 특출한 민속예술가로 명시돼 있다.

모로코, 독일 등 무형문화재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의 무형문화재의 현황을 살피고 제도적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명우 기자



◇91년 소더비경매를 통해 반입된 14세기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 화려한 채색 광물성 안료가 비결

용인대, 2년 8개월 분석결과 밝혀

지난 91년 소더비경매를 통해 한국에 반입된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소장자 이학 용인대 이사장)가 화려한 색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식물성 안료가 아닌 광물성 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5일 열린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 주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 신앙' 세미나에서 박지선씨(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는 지난 11일 공개된 수월관음도에 대한 약 2년8개월에 걸친 보존수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이번 안료분석 및 보존처리는 형광X선 및 적외선 분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안료성분 분석 결과 흰색은 납을, 붉은 색은 수은을, 황색은 황토를, 녹색은 성분을 알 수 없는 광물을 이용해 안료를 만들어 채색했다고 밝혔다.

정우택교수(경주대 문화재학)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표현기법' 주제발표에서 이 수월관음도는 세부의 문양이나 치밀함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존의 14세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표현기법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형상에 이지러짐도 없는 등 국내에 있는 다른 두 점(호암미술관 소장)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정병삼교수(숙명여대 한국사학)는 '고려후기 관음신앙' 주제발표에서 관음신앙은 현실적인 고난에서 어려움을 구제해주는 신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수용된 이래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아미타신앙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의 여성불교인

비구니스님·사회운동가 동향 소개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불교사이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를 사이트 중에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흔치 않다.

'세계의 여성불교인'은 영국의 랭카스터대학에서 최근 개설한 사이트로 비구니스님, 학자, 수행인, 사회운동가로서 동시대의 여성을 이끌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프로필과 최근 동정을 상세히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인물정보는 세계각국의 총 26명이다. 이중에서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필리핀), 틱낫한스님(베트남)의 제자이며 불교환경운동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조안 헤리펙스(미국), 사회비평가로서 인종과 여성문제에 큰 활동을 보이고 있는 벨 훅스(영국) 등이 주목할만 하다. 또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이 한국의 비구니스님으로 유일하게 소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불교와 여성'이라 메뉴를 통해 각국에서 개최된 여성관련 학술 및 사회운동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비구니로서의 삶'이란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 자료, 중국이 티벳여성에게 혹독한 인구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눈물과 침묵', 호주의 불교인이 티벳 여성불자를 돕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활동 등이 상세히 제공되고 있어 불자 네티즌의 시야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http://www.lancs.ac.uk/staff/miltonj/women.htm'을 방문하면 된다. 〈욱〉



◇지난 19일 법련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주최 '불교와 도시문화' 세미나에는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보조사상硏 '불교와 도시문화' 세미나

도시불교 높은관심 반영 '열띤 질의'

지난 19일 보조사상연구원 주최로 법련사에서 열린 '불교와 도시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는 발표자·논평자·참석자들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져 도시불교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본지 제97호 13면 기사 참조〉

○… 길희성교수(서강대 철학)는 논평에서 불교의 도시성을 부처님의 사상적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최근 도시불교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 이봉춘교수(동국대 불교학)의 "산간불교의 의미도 재평가돼야 하지 않는냐"는 논평에 대해 최병헌교수(서울대 국사학)는 "산간불교와 도시불교는 공존의 관계다. 특히, 시대에 따라 국도(國都)불교의 위상이 변화했으나 그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적은 없었다"며 국도(國都)불교의 중요성과 불교가 국가적 사상이었음을 강조.

○… 심재룡교수(서울대 철학)는 '한국 도시불교의 문제와 방향'에 대한 홍사성씨(불교텔레비전 제작국장)의 주제발표에 대해 "현대도시의 사찰건축문제는 '미래형'으로 논의돼야 할 숙제"라며 지속적 연구를 강조.

○… 좌중에서 김호성씨(동국대 강사)와 이창구씨(전북대 철학과 박사과정)가 홍국장에게 "현재의 사찰건축과 장엄을 새로운 양식의 창조로 볼 수는 없는가" 등의 질문을 잇따라 보내자 곡 짚어야 할 질문이 나왔다고 답해 열띤 토론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도.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선암사

대웅전

"태양같은 자비심 뭇생명 기르시네"

巍巍堂堂萬法王
(외외당당만법왕)
三十二相百千光
(삼십이상백천광)
莫謂慈容難得見
(막위자용난득견)
不離祇園大道場
(불리기원대도량)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32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춰 주는구나
그 자비로운 모습 뵈옵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기원정사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대도량에 나투시나니

해설 선암사는 신라 49대 헌강왕 5년(875)에 도선이 지은 절이다. 들어가는 길의 승선교는 화강암의 아치형 다리로 매우 아름다운데 보물 400호로 지정돼 있다. 대웅전 앞의 3층석탑 2기도 보물 395호로 지정돼 있다. 선암사는 우리나라 현존 사찰중 고색(古色)을 매우 잘 간직해 고찰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는 절이다.

대웅전의 주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위신력과 그에 의지해 수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부처님은 이 법계의 높고 당당하신 법왕임을 첫 구절에서 찬탄하고 있듯 백천 광명으로 중생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생심이 부처님의 백천이나 되는 광명을 보지 못하는 탓일뿐 부처님이 먼곳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단언하듯 부처님은 기원정사(부처님이 제자들과 머물던 곳이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을 뜻한다)를 떠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종자이고 우리 사는 이곳이 성불의 원토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단신

세계 400대 문화재 선정
40人委에 최정호교수 참여
한국불교유물등 10점 추천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4점이 세계의 대표적 문화재 4백점안에 선정돼 인터넷을 통해 소개될 전망이다.

최정호교수(연세대 신문방송학)는 지난 20일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와 이탈리아 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류가 빚어낸 천재성 산물 4백을 인터넷망을 통해 전세계에 전시하는 '몬도 트레(Mondo 3)'로 명명된 프로젝트에 국내 문화유산으로 석굴암, 일본 법륭사의 백제관음,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괄만대장경 등 1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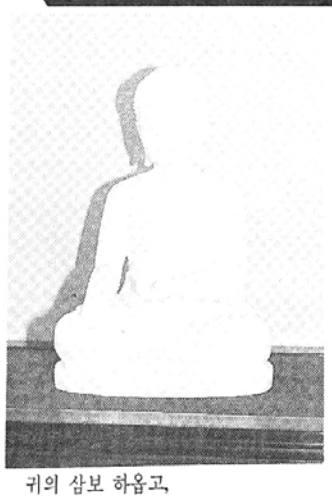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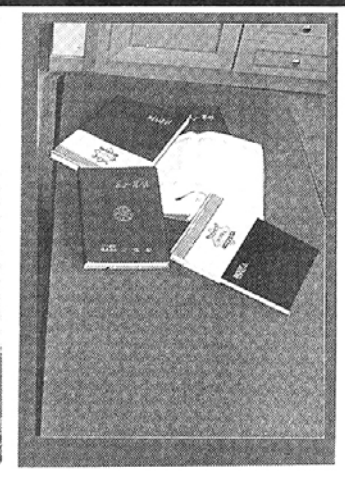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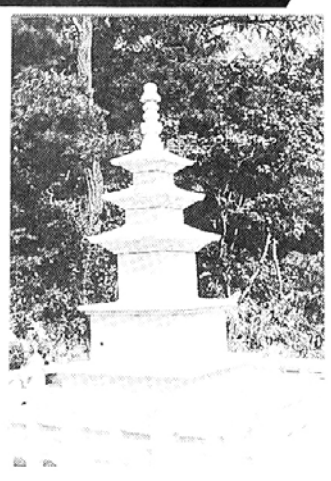
한국의 10대 유물에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조선왕조실록, 한글, 영산회상, 판소리 '심청가', 신윤복의 민속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국보1호 재지정 여부
문체부 11월 여론조사

문화체육부는 금년 말까지 추진중에 있는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작업과 관련 국보1호 재지정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11월중 실시키로 했다.

문체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국보1호 재지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天然玉佛 및 佛紀2541年 불자수첩을 보급합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스님들의 높은 법문을 메모하여 오랫동안 간직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필요한 불자수첩(다이어리)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불자수첩에는 각종 법회시 필요한 모든 법요집과 불교관련단체들의 연락처와 그날 배운 높은 법문을 기록 할 수 있는 노트 그리고 각 사찰 및 단체들의 안내 사진화보 및 법회안내등 필요한 문안을 수록하여 스님들께서 포교하시는데 일조를 하고져 합니다. 또한 스님들의 오랜숙원인 기(氣)가 충만한 천연옥(天然玉)으로 부처님 및 탑을 조성하여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불자수첩, 옥불·대불, 만불, 삼천불, 천불, 옥탑, 옥등

佛 教 文 化 保 存 會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7-3 대륭빌딩 5층
전화 (02)3476-2581~4 FAX (02)3476-2585

이 연 공 고

본인은 10월 9일자 신문을 통하여 하기자들을 본인과 사제의 인연이 다하였음을 공고 한 바 있음.

이후 당사자들의 해명서를 접한바 게재되었던 공고가 마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조작된 이연공고 인것 처럼 되어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한번 명확히 해두고자 이연을 공고하니 차후로는 재론하지 말것이며 의문이 있을시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 바람

승욱·백산·묵화·남일

불기 2540년 10월 25일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185-1
도현정사 한 옹 도 현

유일神 부정…業力따라 윤회

보르헤스의 ㉚ 불교강의

불교란 무엇인가 ③



◇보르헤스는 인도인들은 현생의 가난과 역경까지도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예로 들며 전생과 업의 엄연한 관계를 설명했다.

이제 어려운 문제에 접어 들었습니다.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윤회'를 알아봅시다. 이 문제는 서구에서 문학에서만 조금 다루었을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낯선 것입니다. 윤회의 주체는 영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윤회하는 것은 업(業, karma)인데, 그것은 일종의 정신작용으로서 무한히 전생(轉生)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사상가가 여럿 있는데, 특히 피타고라스가 대표적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전생에서 트로이전쟁에 참가하였다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용했던 방패를 어느 사원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신국론(神國論)〉 제 10권에는 '에르'라는 이름의 병사의 꿈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생할 영혼들이 망각의 강물을 마시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을 그는 꿈에서 봅니다. 그는 아가멤토(트로이전쟁의 그리스코 총사령관)가 독수리를, 오르페우스(그리스신화의 하프의 신)가 백조를 그리고 율리시스가 인간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환생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전생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가씨였고, 사슴이었으며, 바다의 말못하는 고기였다." 시저는 영국 켈트족의 사제계급인 두루이다들이 윤회를 믿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켈트족의 시인 탈리에시는, 자신은 우주의 모든 사물이 되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의 장군이었고, 손에 들린 칼이었으며, 육십개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였고, 마술에 걸려 콜방울 속에 갇혔으며, 밤하늘의 별이었고, 빛이었으며, 나무였고, 어느 책의 글자였으며, 맨 처음엔 한권의 책이었다." 니카라구아 출신으로 중남미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루벤 다리오는 자신의 아름다운 시를, "나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침대에서 잠을 잤던 병사였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회는 문학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신비주의자들에게서도 윤회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말하기를,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치 이 침대에서 자다가 다른 침대로, 혹은 이 방에서 자다가 다른 방에서 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전생에서도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테 가쓰리엘 로세티(Dante Gabriel Rossetti)의 아름다운 시에 보면 "나는 전생에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귀절이 나옵니다. 이어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하여, "당신은 과거에 무수한 생 동안 내것이었소. 그리고 앞으로도 무한히 내것이 될 것이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불교의 윤회와 가까운 순환설이 있었습니다. 성 어그스틴 같은 이는 〈신국론(神國論)〉에서 그것을 비판했지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겁'이라고 하는 무한한 시간의 주기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힌두사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윤회를 믿은 것이지요.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중 전생의 행위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業입니다 業은 정교한 정신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생의 한 순간도 쉬지않고 인연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 천미터가 넘는 쇠로된 산이 있다고 합시다. 육백년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그녀의 비단옷으로 그 철산을 스치는데 그 철산이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일겁의 하루에 해당합니다. 신들의 수명은 대개 겁 단위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힌두 전통에 의하면, 우주의 역사는 주기별로 나뉘며, 주기와 주기 사이 기간에는 베다의 말씀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다음 주기의 세상이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브라만 신조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며 윤회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겁의 시간이 흐른뒤 브라만 신은 다시 태어나 자신의 궁전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과 낭하가 모두 텅 비어 쓸쓸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과 생명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조되어 태어난 신들은 먼저 태어나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브라만 신을 보고, 그가 창조주라고 믿었습니다.

이쯤에서 거시적 우주사에 대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불교에는 신(神)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신이 있다 해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운명이 전생의 업(業)에 의하여 미리 정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1899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난 것, 내가 만년에 눈이 멀은 것, 오늘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 등 이 모두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의 작용입니다. 현세에서의 나의 행동 중 전생의 행위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業)이라는 것입니다. 업이란 너무도 정교한 정신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인연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이 천을 구성하는 실은 우리들의 의지, 행동, 잠, 불면 그리고 꿈까지도 그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천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때, 우리의 업을 계승하는 다른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제자인 도이센(Deussen)은 불교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인도여행중 거리에서 장님 거지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여 그를 동정하니, 그 거지가 말하기를 "제가 장님으로 태어난 건 모두 전생의 업보 때문이지요. 제 눈이 멀은건 죄가를 치르느라 그런 겁니다. 합당한 결과지요." 인도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간디는 병원의 설립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과 원호시설들은 사람이 자신의 빚을 갚을 기회를 단지 연기시킬 뿐이라는 거지요. 남을 도와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차피 빚을 갚기 위한 고통이라면, 또한 자신의 잘못을 상쇄시켜줄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겪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은 곧 그 빚을 탕감하는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업은 인정사정이 없는 윤리유지 법이지만, 단순히 전생의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생은 전생에 의해 결정되지만, 전생은 전전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원인은 소급됩니다. 인도인들과 불교신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생이 과거에 무한한 생을 거쳐 왔다고 믿습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너와 나 둘 아니다' 이해 안돼요

문 저는 병원 간호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인공, 저 사람을 얼른 낫게 해줘!' 하는데 그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둘이 아니라는 점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합니다. 〈진철순 · 경북 포항시 남구〉

답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까지도 맡기세요. 왜냐? 모르니까 맡겨라 놓아라 하는 것이지 본래 알고보면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만나고 하는게 그대로 법입니다.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육신이 만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통하는게 중요하지요. 이 마음이라는게 참 묘한 것입니다.

생활하는 중에 놓고가라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순간순간 화해서 나투며 돌아가니까 붙잡을 게 없어서 그냥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얼른 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갸륵한데 모습은 둘일지언정 마음으로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전구는 제 각각이지만 불 들어오는 것은 다 한군데서 오는 전력의 힘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낫게해달라가 아니라 '주인공! 너만이 할수 있다!'이지요.

마음공부 열심히해서 체험을 하게되면 이 마음이라는게 얼마나 고귀하고 광대무변한지를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돌려 놓아라 하느냐하면 과거에 살아온 차원에 따라 업식이 붙어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업식이란 것은 죽어도 따라 다닙니다. 그랬다가 육신받아서 현실로 나오면 또 거기서 붙어다닙니다. 그러기에 자동컴퓨터에 입력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지울 수 있겠습니까? 입력된데다 다시 입력하면 먼저 것은 지워지겠지요? 그래서 닥치는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대로 되놓아서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하다보면 홀연히 그릇이 비고-그것도 이름입니다만, 그릇이 비면 홀연히 내가 나타난다, 참 나와 상봉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신심이 부족합니다

문 스님의 말씀을 전해듣고 저도 주인공을 믿고 맡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돌에 피가 배일만큼 진실해 보아라. 그러면 못 녹일게 없다' 하셨듯이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가도 곧 식어버리곤 합니다.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참 정진이 되겠는지요?
〈백광현 외 · 부산시 해운대구〉

답 지금 생활하는 것 일체가 다 주인공 자리에서 나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이렇게 해야지, 또는 잘 안된다 하는 게 없습니다. 안된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저 여여하다는 말이 있지요?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가 그냥 하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끌고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할때는 무조건 주인공자리에서 한다고 믿고 맡기고 가다보면 나중에 '아하, 이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되고 알게되면 실험해 볼 수 있는 계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여여하게 사는게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잘안된다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믿고 놓고 가시면 됩니다. 정진이란 특별한 게 아니고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놓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놓는게 바로 정진입니다.

기공부와 마음공부 차이점은…

문 예전에 단학수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해서 기를 모으고 호흡을 주시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 공부를 안하고 마음공부로 들어가면 신(神)은 밝아지는데 정이 약해서 이치는 알아도 능력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최연권 · 광주 서구 사동〉

답 단전에 기를 모아 무엇을 어떻게 한다구요? 몸뚱이로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부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아진다고 하던가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 없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단학수련으로 깨우치셨던가요? 단학수련을 했다가 이 몸뚱이 그만 죽어서 사대로 흩어지면 그땐 무엇이 되지요? 그런 공부는 마음깨닫는 공부와 천양지차입니다. 몸뚱이를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마음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몸뚱이 이전에 내가 나온 그 자리를 아는게 급선무입니다.

땅에 넘어졌을 때 엎어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하듯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네 뿌리부터 알아라, 너 나오기 이전의 네 씨앗부터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니 단전호흡으로 뭔가 안다는게 참공부가 될 수 없지요. 그걸 참선이라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옛선사들이 먼저 망념을 쉬라고 그랬는데 망념이 쉬면 몸뚱이도 절로 쉬게되고 맑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무슨 신은 밝은데 정이 어떻다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다 군더더기 입니다.

첫째도 마음공부 둘째도 마음공부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맑고 향기로운 삶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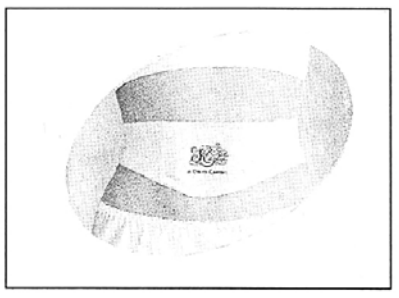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 (바라밀 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 해드립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괙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⑱

用功怎樣下手呢
용공즐양하수니
楞嚴會上 橋陳那尊者說名塵二字
능엄회상 교진나존자설객진이자
正是我們 初心用功下手處
정시아문 초심용공하수처
他說 譬如行客 投寄旅亭 或宿或食
타설 비여행객 투기여정 혹숙혹식
宿食事畢 俶裝前途 不遑安住
숙식사필 숙장전도 불황안주
若實主人 自無攸住
약실주인 자무유왕

공부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능엄회상에서 교진나 존자가 객·진 두자에 대해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들 초심자가 공부를 시작할 자리이다.
그가 설명했다. 비유컨대 길손이 여인숙에 들려 잠자거나 먹거나 하는데 자고 먹는 일을 마치면 한가하게 놀러앉지 않고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나지만
주인이라면 갈 곳이 없는 것과 같다.

如是思惟 不住名客 住明住人
여시사유 부주명객 주명주인
以不住者 名爲客義
이부주자 명위객의
又如牖隙 塵場升天 光入隙中發明空中
우여신제 청양승천 광입극중발명공중

에 비유한 것이요 주인과 허공은 자성에 비유한 것이다.
상주하는 주인은 손님이 오가거나 간에 본래 객을 뒤따르지 않으니
이는 상주적 자성이 본래 흡연히 생겼다가 흡연히 사라지는 망상을 좇지 않음에 비유한것이라.
이른바 절로 만물만상에 무심한데야 어찌 만물만상이 방해가되리오 하는 것이다.

常隨繞 塵質自搖動 本尋不着澄寂的
상위요 진질자요동 본애불착징적적
虛空
허공
喩妄想自生滅 本尋不着如如不動的
유망상자생멸 본애불착여여부동적
自性
자성
所謂 一心不生 萬法無咎
소위 일심불생 만법무구
此中 客字較粗 塵字較細
차중 객자교조 진자교세
初心人 先認清了 主和客 自不爲妄想流
초심인 선인청료 주화객 자불위망상천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티끌은 항상 절로 요동하여 본래는 맑고 고요한 허공에 장애가 되지 않나니
이는 망상이 절로 생겼다 사라졌다해도 본래 여여 부동한 자성에 걸림이 되

"먼저 주인과 손님을 명확히 인식하면 망상은 제 스스로 장애가 되지 못한다"

諸有塵起 塵質搖動 虛空寂然
제유진상 진질요동 허공적연

이렇게 생각하면 머물지 않는게 객이요 머무는 건 주인이니
머물지 않는 것을 객이라 할 것이다.
또 비가 개이고 볕이 쨍쨍하여 햇빛이 틈으로 들어오면 허공의 온갖 티끌이 드러나는데 티끌은 움직이고 허공은 고요하다.

澄寂名空 搖動名塵 以搖動者 名爲塵義
징적명공 요동명진 이요동자 명위진의
客塵喩妄想 主空喩自性
객진유망상 주공유자성
常住的主人 本不跟客人 或來或住
상주적주인 본불근객인 혹래혹주
喩常住的自性 本不隨妄想 忽生忽滅
유상주적자성 본불수망상 홀생홀멸
所謂 但自無心于萬物 何放萬物
소위 단자무심우만물 하방만물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요 움직이는 것은 티끌이라
움직이는 것을 티끌이라 한다라고.
(위의 말씀에서) 손님과 티끌은 망상

지 않음에 비유한 것이다.
이른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될게 없다 한 것이다.
이 두자 중에서도 객이란것은 비교적 거친 것이고 진이라는 것은 비교적 미세한 것이라
초심자가 먼저 주인과 손님을 명확히 인식하면 스스로 망상을 따라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進步明白了 空和塵 妄想自不能爲障
진보명백료 공화진 망상자불능위애
所謂 識得不爲冤果 能於此歸個領會
소위 식득불위원과 능어차체심령회
用功之道 思過半了
용공지도 사과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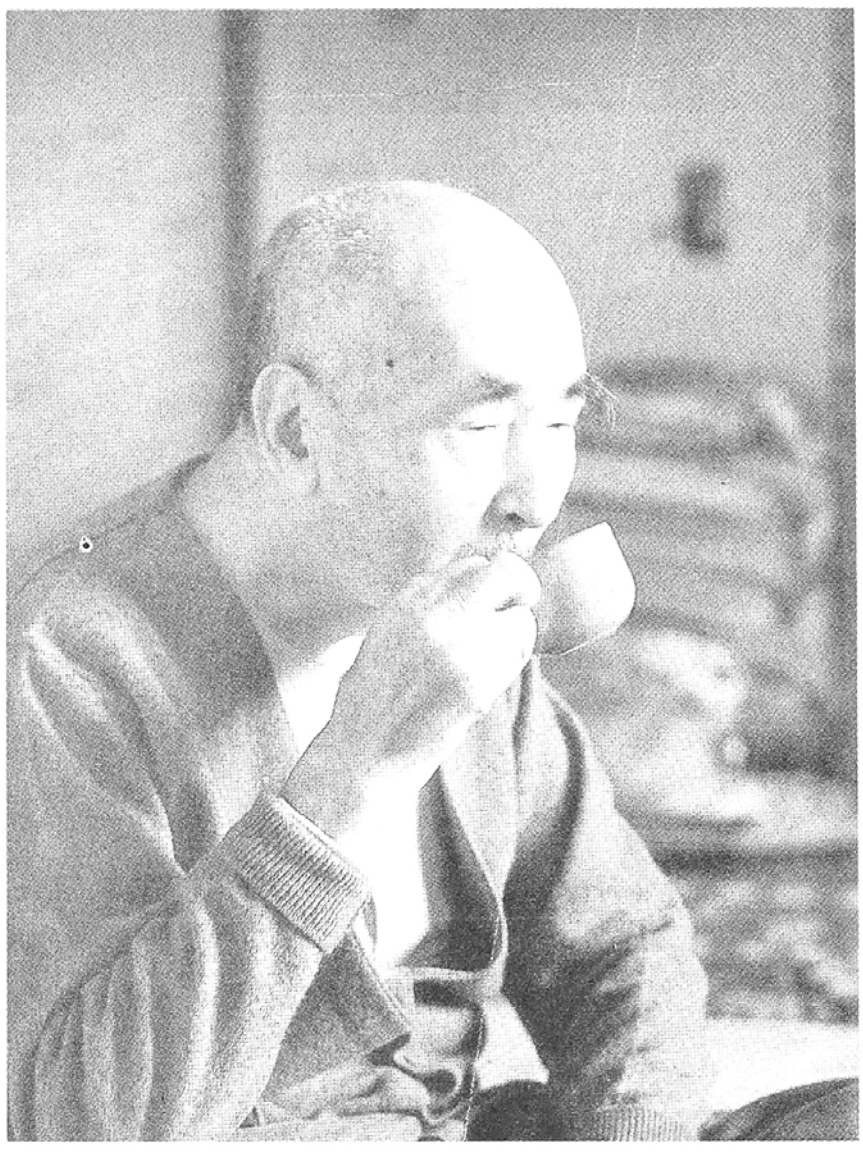
나아가 허공과 티끌을 명백히 안다면 망상은 제 스스로 장애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알게 되면 원통한 과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능히 이 도리에 깊이 다다르면 공부 길은 반쯤 이룬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龍眼

10월은 문화의 달

"노력 쌓이면 눈 떠지니

만봉스님 〈봉원사 주석〉



약력
- 1909년 서울 生
- 16년 봉원사로 출가
- 예운화상에게 단청사사
- 24년 불교전문강원 수료
- 72년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 지정
- 전국 유명 사암의 단청조성및 복원과 불화조성하며 후진 양성

나는 여섯살에 여기 봉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나이에 불화를 그리겠다는 생각을 했을리는 만무하고 그저 절에 가야 오래살 수 있다는 점장이의 말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5대 독자인 내가 나이 여섯에 절에 들어와야 하는 일이 어디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러고보면 이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 두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망설임 끝에 들어 온 봉원사에서 나는 여덟살때 예운(藝云)스님의 제자가 되어 단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역시 지금 생각하면 이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인연이기보다 전생 인연을 이어가는 길을 그 어린 나이에 만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정말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그 10년간 9천여장의 그림을 그려야 했으니까요. 그 9천장의 그림이란 십왕초(十王草) 천왕초(天王草) 여래초(如來草)를 3천장 이상씩 그리는 초보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단계를 다 마치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걸 다 마쳐야 비로소 금어(金魚)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어가 되어야 10여 단계로 진행되는 단청일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나도 10년간 9천여장의 초를 그리고 금어라는 호칭을 받았

부처님 일을 하는데
감히 요령을 부리고
대가를 바라고
부실할 수 있을까요

는데 스승께서는 바로 지휘할 권한을 주지 않고 2년을 더 수련한 후에 비로소 금어의 일을 맡기더군요.

대개 단청을 배우는데는 단청에 앞서 불화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 도상을 긴시간 수련하고 나면 필선에 대한 눈이 떠지고 색을 보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청이나 불화 그리는 일이 돌이 아니란 겁니다. 수천번의 초를 그리고 그 필력을 스스로 자재롭게 다스리는 경지에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이라 여기며 하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단청에만 속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도 꼭 들어맞는 이치입니다.

우선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덟살부터 10년간 9천여장의 초를 그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비교적 단조로운 시왕초를 그리고 다음엔 좀더 필선이 복잡한 천왕초 또 다음엔 더 복잡한 여래초를 그리며 필력을 온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이론으로 될 일입니까. 스스로의 노력 속에서 스스로 떠지는 눈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어린나이에 더러 꾀도 생기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래도 그 일에 왠지 마음이 끌려 견디다 보니 10년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은 나에게 색과 선을 보는 눈을 키워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책을 봐가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세상 사는 일도 이와 같은게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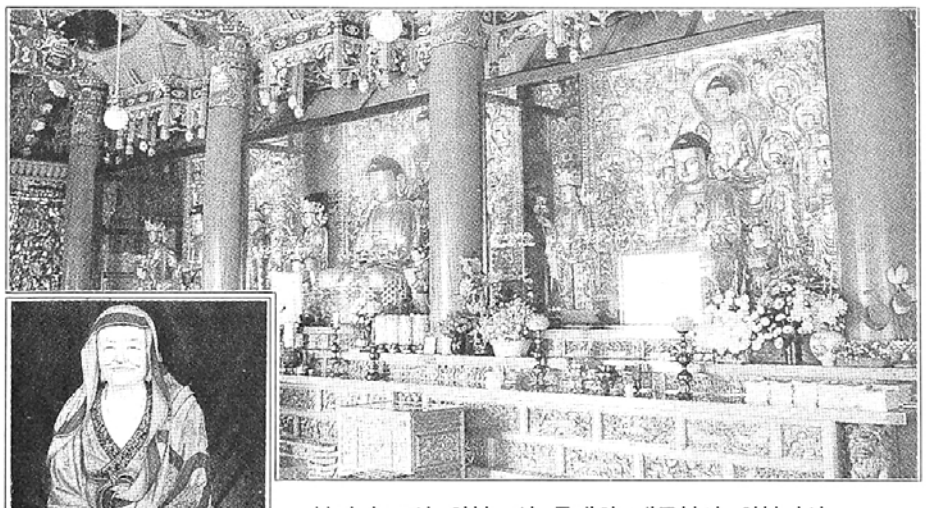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실릴 필요조차 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패륜아가 나옵니까. 이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당연한 일일뿐인 효도를 몸에 익히는 것만 필요할 뿐입니다. 어려서 심부름 잘하고 부모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자라서 자신의 일을 잘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그것이 옳으면 다 효도입니다.

학교에서도 효도를 이론으로 가르치려 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실천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이론을 말할 필요도 없이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될 것이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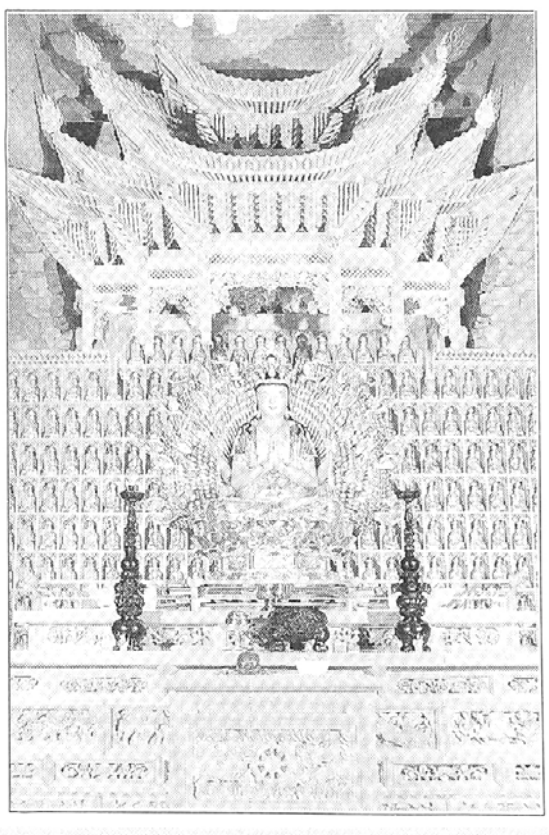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돈 같은 재물의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의 계산이 앞서서도 안됩니다. 모든 불사가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한 불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니까요. 부처님의 회상을 그리고 당우를 장엄하는데 재물의 계산이 앞서면 이미 그 일은 망친 것입니다. 색이 잘 나올리 없고 선이 힘차고 곧고 부드러울 리가 없습니다. 지극한 신앙심과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마음에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어디까지하고 내일 얼마나 하고 하는 것마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대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표에 쫓겨 일을 망칠 뿐입니다. 힘이 나면 며칠씩 밤을 세워가며 그리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매사가 다 수행이지요"

수천장 초 그리면 필력 생기듯
세상 일 이론·계산 만으로 안됩니다

기도 하고 또 더러 며칠씩 쉬기도 하면서 청정한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붓질이 나에게는 선수행과 다를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만큼의 화폭에 무엇을 그릴 것이란 계획 이외의 어떤 계산도 필요 없는 것인데 세상살이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효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실마저 염두에 두지 말고 작건 크건 따질 필요도 없이 오로지 행동으로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하면 내 자식도 내게 효도할 것이란 생각도 하지말고 내가 효도하면 남이 칭찬할 것이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두 부질없는 계산일 뿐이고 스스로의 행업을 가식으로 타락시키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맡아서 많은 댓가를 받고 빨리 해 치우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발생된 하자가 있으면 그걸 뇌물로 해결해 버리니까 더 큰 문제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불사를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금어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어로서 어떤 불사에 동참하여 맡은바 일을 하는 것도 공덕이고 그 작품을 누군가 보고 발심할 것이니 남의 환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여러분이 절에 와서 단청이나 회상도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불교의 진수를 이어가는 이 도량을 아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화가일 수 없듯 봉원사를 중심으로 영산재를 배워 연구하고 연마하는 사람들도 가수나 공연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신앙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심을 발현하고 타인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런 중한 일에 여러 불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것입니다.

신앙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란 수행이란 뜻으로 풀어도 됩니다. 불자는 매사가 다 수행이까요. 지극한 신심과 노력이 이세상을 부처님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새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을 딛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들은 모두 그만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노력의 댓가인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부와 명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이 사람의 심성을 그릇되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생에서 그 결과를 볼 생각이 없어야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나에게 와서 그림을 배우다 이내 포기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럽니다. 내가 몰인정스럽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풀에 넘어지고 말거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가 버리지 뭡니까. 그런 사람을 수백명 봤는데 그중에는 제법 비상한 재주를 지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비상한 재주가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그 재주가 없으면 꾸준히 배울 수 있을텐데 그 짧은 재주를 믿고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분명이 점점 발달해 가는 것은 매일매일 느끼지만 그만큼이나 나약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한다거나 금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 채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발심이 아무리 장해도 행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 발심은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발심의 댓가를 챙겨 먹으려는 속도 더러 있으니 한심지경입니다. 내게와서 불과 몇달이나 일 이년 공부하고 달아나더니 어디가서 자리잡고 '불화 단청 전문' 간판을 내거는 사람도 있더군요.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제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야 용서를 하겠지만 그 서툴고 무딘 솜씨로 부처님 회상을 그리고 당우를 장엄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흐트리는 업보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못 가르친 벌을 받을 것도 문제지만 불화나 단청을 보는 불자들의 시각을 타락시켜 울긋불긋하면 다 잘 된 것으로 아는 현실도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불법 공부하고 큰 신심내어 불자의 도리를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예술을 넘어서는 불사도 많이 이뤄지고 불국정토가 가까워 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갑니다. 절 한채를 지을 인연이 있으면 거기에 부처님을 모실 인연도 있고 단청 불화를 조성할 인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절에서 불법을 만나 무량의 선업을 닦을 인연이 생겨나는 것이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孝 이론 없어 패륜아 나오나… 실천 가르치자"
"발심이 장해도 행이 없으면 결국 욕심만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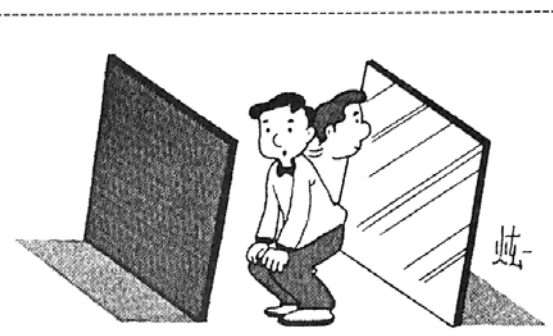
단청·불화 조성하는 이
불사 동참대중·보는 사람
'한마음' 되면 부처님 세상

단청을 하건 불화를 그리건 나는 그것을 일이라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야 일이라 표현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일이라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어찌 노동으로써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효도를 업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해 불자된 복도 무량하건만 부처님 회상과 제불보살의 상호를 그려내는 재주와 인연을 받은 것이야 이루 말로 표현 못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생의 복덕이라고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댓가를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얼른 마치려는 욕심에서 요령을 부리거나 부실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사하는 사람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불사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감히 요령을 부리고 대가를 생각하고 부실을 저지르겠습니까. 불사는 거기에 동참할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인데 말입니다.

요새 자꾸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일을 한다'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공사를 마구 해 온 업보인 것입니다.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장엄스런 부처님 세계를 엿보는 것도 불자의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단청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이나 불사에 동참하는 대중이나 마음자리가 다 하나여야 하는 이유를 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나같이 불화나 단청을 하는 사람과 미술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나보고 그냥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황송하게도 금어라 불러주고 단청장 불화가라 불러 주는데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술가 화가와는 아주 다르거든요. 바로 신앙심의 문제입니다. 예술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지극한 신앙심을 발휘해 지극한 신앙적 의미를 새겨넣고 보는 사람에게 환희의 신앙심을 일으키게 하는 금어가 다를 수 밖에 없잖습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고된 수련을 연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 봉원사는 참으로 길상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불교의 전통을 훌륭히 이어가는 스님들이 많으니 참다운 길상지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불화 단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0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7)

물리적 진공과 아공

'태초의 진공' '오늘날 물리법칙' 다르듯
'我空'도 인간의 분별지 벗어난 자리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다 함께 모든 물리현상은 그 현상을 관찰하는 관찰자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다. 또한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는 실체로 보이는 물질이 본질적으로는 실체라고 할만한 알맹이가 따로 없다는 것도 설명한 바다. 그러니 '무색'이라면 '무수상행식'일 것이다.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에 대한 주체는 우리가 '아(我)'라고 부르는 것인데 '무수상행식'이라면 '아'도 없어야할 것이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아공(我空)'이라고 하여 '아'를 부정하고 '법공(法空)'이라고 하여 분별지로 보는 모든 법칙과 현상을 부정하고 있다. 색에 국한시켜 말한다면 물리학도 법공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법칙이 없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런데 '아공(我空)'이라는 말을 하는 물리학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 '아'는 물리학의 연구대상이 현재로선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현상과 법칙을 조사한 결과 무색이라는 말에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색이라고 할만 것이 없거나 색의 실체라고 할만한 것이 따로 없다면 색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기에 무수상행식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꿈을 꾸기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꿈꾸는 자를 '아'라 부르면 어떤가? '아'마저 꿈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아'를 꿈이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해보면 끝이 없다. 언제나 '나'를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생각밖에 존재하게 된다. 생각밖에 존재하는 '나'를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나'가 생각밖에 존재하게 된다. 생각만으로는 결코 '나'의 끝을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밖에 존재하는 '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아공'을 말한다. 반야심경에서 설하는 '공'이 '아공'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전은 언제나 '…무색 무수상행식…' 하는 식으로 언제나 물질과 정신을 함께 얘기한다. '아공(我空)'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별지로 추론하기 전에 먼저 앞서 말한 '아'의 구조를 물질세계의 구조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아'와 '아'를 생각하는 '나'도 끝없이 이어지는 '아'의 구조가 물질세계에서 발견된 것은 20세기 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울을 마주보도록 세워 놓고 가운데 촛불을 켜두면 거울에 비친 그림자의 그림자가 다른 거울에 생겨나서 무한히 많은 촛불의 그림자가 생겨난다. 간단한 구조가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불규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조를 쪽거리구조(Fractal Structure)라고 부른다. 눈송이는 간단한 기하학적 구조가 반복되어 전체적으로 육각형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떨어진 눈송이중 똑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급하게 소용돌이치며 불규칙하게 흐르는 물결, 제멋대로 생긴 바위나 해안선도 간단한 기하학적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아'의 구조도 기하학적인 쪽거리 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물리학이 '아공'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로 이루어진 아의 구조구조를 물리적 진공과 비교할 수는 있다.

복잡하고 커다란 우주가 시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탄생했듯이 생각하는 '나'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생각밖의 '아'에서 온것이라면 이 생각밖의 '아'를 '아공'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우주를 탄생시킨 태초의 물리적 진공이 오늘날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벗어나 있듯이 '아공'도 인간의 분별지를 벗어나 있다.

경전에서 말하는 '공'은 물리법칙에 벗어나 있고 분별지도 벗어난 그자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선언하고 '…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고은 불교대하소설

우녀신앙



"나더러 소승(小乘)이라고 탓하는 것인가. 내 누이가."

여기까지 말한 다음 상수가 화제를 바꾸었으므로 더이상의 충고는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나 등짝이 이상하다…."

오빠는 누이에게 등을 돌렸다. 누이는 조심스럽게 오빠의 등을 만져보았다. 척추 네번째의 뼈가 다른 뼈마디와 달리 약간 불거져 나온 것 같았다.

"등을 방바닥에 대고 누울 때는 좀 거북하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상처럼 옆구리로 누울 수 밖에 없단다."

"두고 보아요. 그러다 제 자리로 돌아가겠지."

오빠 상수는 다시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우리 상율행자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는가?"

"우녀보살이 관음 염불선을 권해서 관음정근을 하고 있어요."

"네 소리는 들리지 않던데…."

"소리 정근도 하지만 마음 속에서 소리 없는 정근도 하지."

"원래 염불이나 송주(誦呪)나 다 구업(口業)짓는 중얼거림이기도 하지."

"오빠… 이 입으로 다른 업장을 쌓기보다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 일이야."

누이는 그를 가리키는 우녀보살로부터 오빠가 아주 놀라운 경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슬쩍 들은 적이 있었다.

무욕도에 건너오기 전에도 1년에 한번씩은 잊어버리지 않고 앓아야 하는 병에 걸려 누워있었다. 그런 병약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인담스님의 뜸이나 우녀의 기도나 다른 사람들의 걱정들이 뭉쳐서 그를 일어나게 한 셈이었다.

이곳은 어느 한 사람의 일도 모든 사람의 일이었다. 마음 속의 일치야말로 이곳의 미덕이기도 하였다.

상수는 누이 상율과의 대화 이후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대해와 상수는 어느 모로 보나 대조적이었다. 늠름한 장부의 기상을 지닌 대해에 대해서 상수는 창백한 몸에 눈빛 하나가 막 갈아놓은 칼날처럼 서슬이 져 있었다.

"어이 상수처사! 그대는… 내가 남은 놈 하나가 바로 죽었는데… 꼭 그 놈처럼 비실거리는군."

"옳습니다. 저는 비실거리다가 말 것입니다."

"사내가 뱀을 좀 키우게… 그렇게 삼삼개 모양으로 따르지만 말고…."

"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네는 하심(下心)이 아니라 자신을 쓸모없이 낮추는 것이야… 왜 이 집안에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어 왔겠나… 그 말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도 아닌데 말이지…."

"오늘 알지 못하면 내일 알게 되겠습니다, 대해님."

"허허 도마뱀인가, 잘도 달아나는군."

말하자면 상수는 대해와 같은 아무런 수식도 없는 사람에게도 어딘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결국 상수는 그의 동행자들과도 동떨어진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외톨박이 신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도 없었다. 그는 한 곳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다만 그가 요즘 입속에서 뜰릴락말락한 한 마디 말이 있었다. "바다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서방정토에도 마음을 두지 말자(不心海 不心淨土)"가 그것이었다.

가을이 성큼 왔다. 아침 파도소리가 벌써 자고 난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육근(六根)의 합화에는 이같은 추위에 움츠러든 신근(身根)의 반응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

대중들이 새벽 예불에 나오지 않은 상수에 생각이 미친 것은 예불을 마치고 나와서였다.

대해가 말하였다.

"또 누워버린 것인가?"

인담이 명오에게 일렀다.

"간병실에 가보게나."

명오가 위쪽 요사채 뒷방에 갔다가 달려왔다.

"간병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

대해와 효영 박월들이 달려갔다.

상수는 아무것도 없는 간병실 방바닥에 아주 단정하게 누운 채로 죽어 있었다.

> **고려의 후예인 상수는 지난날 영지였던 무욕도의 관음신앙을 되살리며 눈을 감았다 그는 우녀를 관세음보살로…**



99

벼칠전 상수가 들려준 것을 우녀는 지금이 떠올렸다.

"우녀보살님, 이 도량에는 멀리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에서 있는 여덥모골로 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머물고 계신 곳인 것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에는 강원도 양양 낙산사 홍련암에서 그 여덥모골의 섬으로 건너갈 수 있고 청나라에는 양자강 아래 절강성의 주산열도(舟山列島)에서 그 섬으로 갈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천축국에서는 남인도의 보타락가(補陀落迦)에 있다 합니다…."

저는 이 무욕도에서도 바다를 건너가면 반드시 그 여덥모골의 바위산으로 된 섬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도 여러 차례 그곳에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녀는 상수의 식은땀이 배인 하얀 이마가 눈부신 것에 놀라며 지난날 남각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난바다에 실어가 물에 띄워버린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남각 말고도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수장(水葬)으로 떠내려간 것이었다.

그런 상수의 절절한 염원이 담긴 이야기 끝에 우녀 자신의 마음 속 눈도 무욕도의 전생이 보이는 것이었다.

인담이 이 무욕도에 도량을 열기 이전, 아니 고려 초기의 후삼국전쟁 잔재가 여기 저기 남아있을 때 이 무인도에는 관음신앙에 빠진 몇사람이 육지에서 건너왔었다.

그들 중에서 법력(法力)이 뛰어난 여인이 관세음보살이 있는 바다 건너의 보타락가에 가기 위해서 작은 배에 혼자 탄채 어느 만큼의 난바다까지 전송하는 다른 배 두척과 헤어져 그야말로 바다의 흐름과 바람을 잘 받은 파도에 의지해서 관세음보살이 보문시현(普門示現)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왼쪽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온갖 중생들이 당하는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데 그는 항상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그것은 활짝 피어난 연꽃이야말로 중생들이 본디 갖추고 있는 부처 성품(佛性)을 통해서 부처를 이룬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바로 그 관세음보살이 10만억 국토인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혼자가 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다.

이같은 바다 위의 관음신앙은 멀리 천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조선에는 동해 낙산사 홍련암과 서해 무욕도 두 군데로 되어있었다. 언제 누가 그런 신앙을 시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낙산사만 하더라도 신라 화엄종의 의상과의 인연이 있는 도량이어서 심지어는 그의 선배인 원효가 그곳에서 심한 푸대접을 받는 일도 있었다.

원효가 동해안을 순례하는 중에 낙산사 홍련암 부근의 아낙네에게 물 한 바가지를 청하자 샘물 대신 여자의 속에 차는 서답을 빨은 빅은 피 섞인 더러운 물을 주었던 사실도 그곳이 원효를 거부하는 의상의 도량임을 뜻하는지 모른다.

아무튼 그곳 동해 해돋이 무렵의 아침 바다 멀리 문득 관음보살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척 실감이 날만하였다.

그런데 무욕도의 관음신앙은 고려초기에 비롯되어 무신란 무렵부터 뚝 끊겨져 무인도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충청도 서해안의 사람들도 무욕도가 지난 날의 영지(靈地)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인담에 의해서 다시 도량이 된 것이다.

인담도 고려의 선승 답인을 꿈에 본뒤 아미도 그 꿈속의 스승에 인도되어 이 섬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인담역시 관세음보살에 대한 유서 따위와는 상관 없는 선승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무욕도의 어디에도 고려시대의 자취 따위가 남아있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새의 깃털 하나 남겨진 것이 없는 무인도에 그가 처음으로 올라선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귀족의 후예인 상수가 이 섬에 건너와서 지난 날의 사라진 관음신앙과 그 관음신앙으로서의 바다 복판에 몸을 내맡겨 죽어가는 적극적인 정토신앙을 되살리는 것이다.

상수는 혼자서 이 바다를 건너가려 하다가 끝내 그 비원을 지닌채 섬에서 눈을 감은 것이다. 그는 혼자서 우녀를 관세음보살로 섬겼다.

그림 · 조향숙

"바다에도 마음을 두지말고 서방정토에도 마음을 두지말자"

그 뒤 상수는 간병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마치 가을 잠자리처럼 그의 몸 전체에 어떤 체중도 없고 몸 속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모를 투명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오싹 냉기를 느끼기까지 하였다.

그를 데리고 온 효영도 그런 상수를 대하자마자 섬뜩하였다. 심지어 그의 누이 상율조차 "오빠!" 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이질에 부딪친 것처럼 여겨졌다.

눈은 물속에서 금방 건져올린 것처럼 맑고 얼굴의 어디에는 티끌 하나 달라붙을 수 없이 파란 빛이 감돌았다.

병이란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상감청자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녀는 이런 상수를 그가 병들기 전보다 좋아하였다.

"우리 도량에 화신(化身)이 나타났어. 화신이란 그 자신보다 더 거룩한 보살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신을 없애버린 공부를 한 보살이기도 하지요."

그때 인담이 말렸다.

"너무 올리지 마시오. 다른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대하구려."

"오래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갈지라도…."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 사이 상율이 오빠 상수를 저쪽 숲 언저리에서 호젓이 만나고 있었다.

상율로서도 이렇게 오빠와 단둘이 있는 경우가 이 섬에 와서 처음이었다. 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공부에 너무 앞서지 마."

"앞설 것도 없다."

"아니야. 오빠는 그동안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혼자 공부를 한 것이야."

"하기야."

"그런데 공부를 혼자만 하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까지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공부가 아닐까."

"큰 배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라 이것이구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어쨌거나 함께 가는 것이 이 도량의 공부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사찰안내
▶ 위 치 : 충북
▶ 법 당 : 10평
▶ 요사채 : 20평
▶ 대 지 : 94평
전 화
0398)591-8271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 연령 : 35-60세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불광산 정토원
전화 : 0338)71-8209 · 8210

사찰 · 암자 안내
위치 : 대전광역시 기해동 대죽산 그린벨트내
대지: 80평, 건평 40평, 밭 420평
증축90평까지가능
■ 매매 2억5천 (전세 4500포함)
핸드폰 : 011-403-2151
삐 삐 : 012-401-6078

탈종무효공고
대한불교 해동종
사찰 : 서울대한선원 주지 유상채
서울 성불암 주지 진영태 화성 청국사 주지 김청래
서울 불상암 주지 신우태 용인 성불사 주지 김상우
광명 청성사 주지 박동원 용인 통현사 주지 정정숙
수원 천불사 주지 최순환 충성 약산정사 주지 유상원
수원 상덕암 주지 석영순 영월 해각사 주지 김정우
수원 수덕사 주지 윤영문
상기 사찰은 96년10월23일자 현대불교신문에 게재한 탈종공고는 미등록 사찰로 처리되었음으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1996년 10월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귀하

동불 · 탱화 순금불사 · 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明堂 사찰부지 묘지터(급매) * 정기도 해당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壬佛里)
■임야 : 33500평
■가격 : 평당 7500원(시세절반값, 협의불조정가)
■특징 :
▷ 2차선 도로 인접 (코란도 진입가. 도로에서 산까지 1km)
▷관광호수 근접, 88고속도 거창 IC에서 10분, 생수공장, 기도원, 회사연수원부지, 펜체지목장(다용도산)
▷명당터(월계관형국)지질, 산세수려함
연락처 : (0343)71-7242
74-7775(신주)

부전스님 및 49제 당일 출장 필요하신 스님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
02)661-2433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찰 안내
■위치 : 목포시내(교통편리)
■부지 : 582평 ■ 법당 : 23평
■요사채 : 2채 30평 ■ 비용 : 3억 2천만원
연락처 0631-78-1055

사찰안내
산세 수려청정한 곳에 사찰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목포중심지
■ 법당 : 23평, 요사채 : 20평
■ 건평 : 200평
■ 물 지하수, 교통편리
■ 비용 :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062)525-4417
011-579-9865

탈종공고
주 소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1번지
사찰명 : 고 현 사
주 지 : 김 원 도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 · 종풍을 수행 할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0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희 기술로써 각 사람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전드 쌍계사 : 사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법상등회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회 등
구로동 원등사 : 불단, 문짝
불교미래원 : 불단, 운판, 경탁회
양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회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독 자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나우누리 : sutta
부다피아 인터넷 : gobaoou@buddhapia.co.kr

현대불교 100호 독자소리 100字

환경운동 '가정서 부터'

30대 가정주부다. 앞으로 물기가 있는 음식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찰에 가서 공양을 해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깨끗하게 공양을 한다. 모든 주부들이 사찰의 음식문화를 배워 가정부터 실천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더욱 깨끗해질 것이다. 〈김미란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석굴암에 균열이라니

지랑스런 문화유산 석굴암에 균열이 생겨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석굴암이 천년 만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았으면 한다. 미래역사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장경희 · 경기도 군포시 당동〉

본사마다 寺報 있었으면

최근 책방 여시아문에서 '사보(寺報)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 몇몇 본사급 사찰에서는 사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스님들이 사보가 신도들 상호간의 소식 교환은 물론 대외적인 문서 포교지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한용호 · 충남 천안시 영성동〉

진관스님 즉각 석방을

진관스님의 안기부 연행소식에 충격이 크다. 걸림없이 인권노동운동을 펼쳐온 스님의 모습은 진솔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스님이 문민정부시대에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구속된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본다. 스님의 즉각적인 석방을 간절히 촉구한다.
〈김원식 · 전북 익산시 신룡동〉

회암사지 날로 황폐화

우리 마을에는 고려때 전국 본찰인 회암사지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소홀해 날로 황폐화되고 있어 늘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보금자리였던 이 사지를 불교계가 앞장서 복원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전귀헌 · 경기도 양주군 회암리〉

산사에도 쓰레기 몸살

요즘 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우리가 몇년도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음료수병이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진성 · 충북 중원군 엄정면〉

독자 기고

부러운 일본의 장애복지



강주수
〈부산불교신도회 수화강사〉

지난 9월17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의 초청으로 '96 아시아 태평양 복지 교류 사업단'의 일원으로 후쿠오카 복지시설을 견학했다.

후루오카시는 부산보다 면적이 적으며 인구도 적다고 하는데 거리는 아주 깨끗했으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엘리베이트나 지하철 같은 번잡한 곳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먼저 타거나 내리라고 손짓하는 모습은 친절이 완전히 몸에 밴듯하여 우리나라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장애 종류를 지체장애, 정신지체, 맹·농 4종류로 구분하고 있었고, 공소에 청각언어 장애인쪽에서 활동한 나는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지 했으나 같이 가신 분들이 계셔서 듣든했다.

꽉 짜여진 일정표대로 구석구석을 견학했다. 최첨단 기계들을 연구 개발도입하여 장애를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발견하여 0세부터 치료, 요육, 재활하도록 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1979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도록 유도하며 각 동회나 구청, 시청에서는 아동 상담소, 장애인 교육센터와 사회복지사무소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이 기능에 맞춰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연결 시켜주는 정책은 참으로 부러웠다.

시설 또한 훌륭했다.

후루오카시의 건널목에는 턱이 없었고 맹인용 유도 블럭에 작은 점들이 밟이면 불이 환하게 켜졌으며 엘리베이트에는 맹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자로 기계조작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체와 맹, 정신지체와 지체등… 중복장애인이 고용되거나 수용된 시설에는 혼자서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복도 사무실등에 손잡이가 아래 위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며, 맹인도 함께 잡고 알도록 군데군데 점자로 표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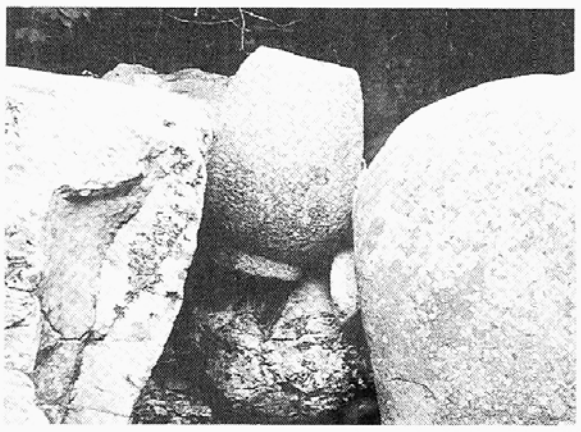
"건널목마다 턱이 없었고 공공시설마다 점자시설 장애인도 살만한 나라"

뇌졸증등 뇌 손상을 입은 중도장애인이 된 사람들의 기능회복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일상생활 훈련공간:시설 일부분을 가정집처럼 꾸며 부엌, 화장실, 목욕탕, 방이용등 장애를 입기전의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훈련)과 건강관리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인 안락한 노후생활 프로그램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수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기계들이 모두 버튼 하나로 이용이 가능 했으다. 또 부모와 교사가 일체가 되어 1:1 방식으로 장애어린이의 치료및 재활을 위한 놀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직업인이 아닌 사랑의 화신같아 마음이 뭉클 했다. 경증장애인들이 통원버스를 이용하여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자립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프로그램 역시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 몇번 일본농아인과 이야기를 해 본 나는 우리 수화와 일본 수화가 같은것이 많다는 사실이 재미있어 기회가 되면 일본에 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청각언어 장애인이 있는곳에 가 볼 수 있었다.

평소에 내가 꿈꾸던 것들이 그곳에서는 현실화 되어 있었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요소요소에서 그들이 갖고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농아인들을 생각해 봤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수용시설인 노인홈에서의 그분들의 모습은 무척 밝고 명랑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용시설이 아닌 말그대로 가정이었다. 직원과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생활하시는 그분들은 분명 한국에 태어난 우리 농아인들 보다는 행복하게 보였다. 그러나 가는곳 마다 장애를 입은 원인을 연구 분석하고 현재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되돌아 보게하는 정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게 아쉬웠다. 그리고 불교국가인데 불교수화가 없는게 의외였다.

전반적인 장애인 교육과 재활시설이 모두 세세한 부분까지 과학적이며 체계화되어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장애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복지행정에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졌다.



독자사진

개천속 부도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송계사 매표소 부근 개천에 방치되어 있는 부도의 모습이다. 이 부도의 모습은 사찰을 참배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하루빨리 제 모습으로 복원되길 바란다. 〈이중수 · 서울시 중구 묵정동〉

독자만평



석굴암 균열…

〈김영은 ·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노끈과 밧줄과
쇠사슬을
말안장과 함께
끊어버리고

이 향 원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성북리 393-1
대원사
☎ 0331-262-0606

기도 · 공부 · 휴양하실 곳
위치 : 지리산, 경남 하동군 악양면 형제봉 청학사
특징 : 1인1실, 욕실완비, 숙식제공
비용 : 월25만원
연락처 : 0595)83-2933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약수암에서는 일상의 굴레를 벗고 편안히 수양을 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 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실분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 3명
▷입주조건 : 입주금 2 ~ 3천만원
▷연령 : 50세 이상
▷시설 : 1人1室(목욕시설 완비)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약수암
▷문의처 : 0348)52-4801 · 53-4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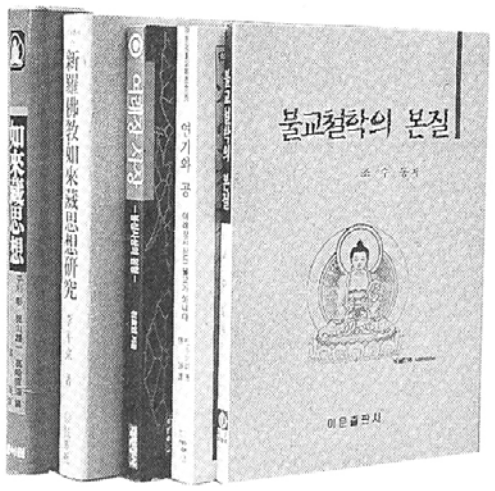
누구나 할수있는 성공사업
"부처님의 가피력은 불가사의 하여라"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는 큰 회사에서 성실하고 경륜있는 거사님, 보살님 모셔서 큰 사업 하시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3가지 기도
"자본없이 할수 있는 사업"
"중생에게 유익을 주는사업"
"전망이 있는 사업"
공무원을 퇴직한 후 사업에 실패하여 2년의 방황끝에 위의 3가지 화두로 기도하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지 34개월이 지난 지금 상무에 승진하여 안정된 직장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상섭 거사입니다.
사업경력, 공무원(군간부), 기업체간부, 자영업 경력이 있으신 거사님, 보살님 본 사업에 동참하세요.
성공하시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주십시요
※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에 이득되게 하라
상담 : 02)3469-0881~4 (김상섭거사)

불교전통의식(범음 · 범패)강좌안내
불교전통의식의 저변확대와 신심고취 향상을 위한 불교전통의식 강좌를 개설하오니 뜻있는 스님과 재가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다 음 -
■ 개강일시 : 1996년 10월 18일(이후 수시모집)
■ 교육시간 : 화 · 금요일 6시부터
■ 교육과목
▷상주권공 및 작법 - 바 라 - 〈천수 · 사다라니 · 요잡〉
▷착복(나비춤) - 〈도량게 · 다게 · 사방요신〉
▷시련 · 대령 · 관욕 · 신중작법 · 관음시식
▷사물다루는 법 · 기초의식 · 상단 중단 · 불공 강의
본 교육원에서는 일불제자로서 뜻있는 스님은 누구든 환영하며 다년간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시고 계신 오 송강스님께서 직접지도하며 졸업후 시험을 통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강 원 : 841-1154 (오후 6시 이후 전화요망)
핸드폰 : 011-258-03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송강범음강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1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10월 21일 ~ 11월 19일
■ 개강일시 : 1996년 11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중생은 다 불성…' 여래장 사상

학술서 잇단 출간 '눈길'



불교철학의 본질 윤회·업·연기설등 분석

여래장 사상 日학자 논문 8편 번역

신라불교… 삼국시대 여래장사상 조명

대승불교의 핵심인 여래장(如來藏)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학설. 이른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이같은 여래장사상을 다룬 불교학술서들이 잇달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동시에 출간된 조수동 경산대교수(동양철학)의 〈불교철학의 본질〉(이문 刊)과 다까사끼 지끼도 교수(駒澤대)의 〈여래장사상〉(경서원 刊)과 지난 4월 민족사에서 출간된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의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등이 그것이다.

〈불교철학의 본질〉은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윤회와 업사상, 연기설 등 불교철학의 특질을 조명한 연구서다. '여래장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여래장사상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조수동교수는 여래장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법신이 일체 만물에 두루 편만해 있다는 것 △진여(眞如)는 여래나 범부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 △실천 수행하면 누구나 다 여래가 될 수 있다는 것등을 든다. 따라서 "일체의 망령된 현상을 전개시키는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성에로 귀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여래장 연기설이다"고 말한다.

종호스님이 번역한 〈여래장사상〉은 일본학자들의 여래장사상 관련논문 8편을 번역한 책이다. 일본 불교의 거의 모든 종파가 여래장사상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여래장사상의 역사와 문헌 △여래장의 체계 △불성·일천제(一闡提) △여래장의 믿음 △여래장과 아뢰야식 △티베트에 전하는 여래장사상 △여래장과 밀교 등의 논문을 통해 여래장사상의 전모를 파악하게 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돼 주목을 받은 〈신라불교…〉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의 여래장사상을 집중 조명한 깊이있는 학술서다.

지난해 출간된 마츠모드 시로우 교수(駒澤대)의 〈연기와 공〉(윤주사 刊)도 관심을 끌었던 책이다.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는 주장을 담은 이 책에서 저자는 "여래장사상은 '연기' 및 '공'사상과 양립할 수 없다"며 여래장사상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극복을 통해서만 불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다.

한편 여래장사상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는 지난 93년 출간된 정호영 충북대교수(철학)의 〈여래장사상-불성사상의 원형〉(대원정사 刊)으로 알려져 있다.

여래장사상은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여시아문」 寺報 전시회 성황

국내 최초의 '寺報 전시회'가 불자들의 관심속에 개최됐다. 책방 여시아문 개업 2주년기념으로 지난 10월 23~29일 책방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최초의 사보인 〈도선법보〉(72년 5월 刊), 최초의 회보인 〈신행회보〉(61년 2월, 발행인 김동화) 등 20여종의 창간호를 포함, 80여종이 전시됐다. (본지 94호 12면 참조) 이번 전시회는 사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유발을 통해 사보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친구여 우리 붓다가 되자' 저자 김호철 경위

일선 경찰관이 쓴 신행체험기



초급 경찰관부의 생생한 신행체험이 녹아있는 구도기 〈친구여, 우리 붓다가 되자〉의 저자 김호철 경위(29).

"호법신장이 되어 불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겠다"는 원력을 세운 그는 현재 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경찰청불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주사대부고 불교학생회 후배들을 지도하는 등 불교 일을 본업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재가 수행자이다.

〈친구여…〉에서 김경위는 일상속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한 수행체험 사례와 불교입문자를 위한 게송 53편을 실어 일반 불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부처님 당시의 근본불교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경위는 "교학과 수행이 무르익으면 인간소외와 환경파괴, 사회윤리의 붕괴 등 현대문명의 병폐를 불교적으로 진단·처방하는 사상서를 내고 싶다"고 말한다.

본지 100호기념 '베스트불서' 분석

본지 창간호(94년 10월 15일자)부터 99호(96년 10월 23일자)까지 불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불서는 일타스님의 〈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방 여시아문 집계 '금주의 베스트 불서'의 1위에 선정된 횟수별로 살펴보면 일타스님의 〈기도〉가 15회, 김진태씨의 〈달을 닫는 강물〉이 8회, 법정스님의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와 무비스님의 〈금강경 강의〉가 7회, 성철스님의 〈영원한 자유의 길〉이 6회, 틱낫한스님의 〈삶에서 깨어나기〉와 우학스님의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가 4회, 혜원스님의 〈삶은 苦가 아니다〉와 고은씨의 〈소설 禪〉이 3회 등의 순으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 베스트불서는 법어집 수상집 소설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1위에 선정된 종수별로는 법어집이 7종, 불교입문서가 6종, 수상집이 5종, 소설이 4종, 詩가 3종, 경전이 2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학술서와 만화 어린이불서는 각각 1종에 그쳤다.

〈재〉

일타스님 '기도' 15주동안 1위

법어집·불교입문서·수상집등 '스테디셀러'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위 선정 불서(2~99호)

1위 횟수	도 서 명	편·저자	출판사
15	기도	일 타	효 림
8	달을 닫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7	금강경 강의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무 비 법 정	불 광 샘 터
6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4	삶에서 깨어나기 생활속의 기도법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틱 낫 한 일 타 우 학	장 경 각 효 림 좋은인연
3	소설 禪 삶은 苦가 아니다	고 은 혜 원	창작과 비평사 여시아문
2	道 禪 백문백답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퀴즈 대장경 무소유 소설 등신불	김 정 빈 진 제 효 림 불교정승권신부 법 정 용 산	글 수 레 파란나라 대원정사 불 지 사 범 우 사 문학수첩
1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앞고 미라래빠의 십만송 나를 보게 하소서 아함법상의 체계적 연구 알기쉬운 불교 하늘 맑은 날 영가천혼 법어 달마의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불타의 가르침 천수경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부처님 땅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가지	김 현 준 원 의 범 이 정 섭 현 장 고 익 진 권 성 부 성 우 성 우 고 우 영 데시마루 이 기 영 무 비 서 암 이정범外 용 산	교보문고 시 공 사 시 공 사 민 족 사 동대출판사 불교방송 토 방 토 방 불 지 사 장 승 불교진흥원 불 일 동 지 불 지 사 고려원미디어

승적박탈 파계승 연애소설 '엑스경'

소재·용어 불교왜곡 '물의'

출가와 환속을 반복한 파계승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현몽의 자전적 연애소설 〈엑스경〉(전 2권·문학수첩 刊)이 불교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우려되고 있다.

〈엑스경〉은 불세출의 땡초, 허무의 독생자, 박가모니 등으로 불리는 현몽이 자신이 겪은 거침없는 파계의 행적을 여과없이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애정행각을 불교적으로 미화하는등 불교를 곡해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돈 떨어지고 인정 떨어지면 산으로 들어가고 기력을 회복하면 다시 저자를 헤맸다는 그의 애정행각은 "여섯살에 시작해 쉰에 이르도록 나그네 길목마다 만난 여인이 백팔 염주 알알인듯 꼭 백여덟명이고 그 중 대표 여자가 일곱명으로 남았다. 엄청난 연애가 있었고, 엄청난 이별들이 지나갔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섹스가 삶의 목표인 듯한 그의 소설의 배경과 소재, 용어가 대부분 불교적이라는데 있다. 특히 '사랑 씀'니 하면서 "예쁜 여인이 있다면 성불도 내일로 미룬다"는 그의 연애론은 "중생을 다 제도하고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연상케 하는 등 '섹스의 불교문학적 포장'을 보여주는 불교 왜곡의 부분이 수두룩하다.

책 표지에 스님 복장을 한 저자의 모습과 섹스를 연상케 하는 책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읽었다는 한 불자는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적나라한 내용과 잘못된 불교관에 아연실색했다"면서 "종단차원의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에 나오는 지산스님의 실제 모델로 잘못 알려진 현몽은 속성이 박씨로 열아홉에 출가, 입산과 환속을 거듭했으며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조계종단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재〉

이철수 판화집 英·獨語판 나와

이철수씨의 판화집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와 〈소리하나〉가 영문 독문판으로 각각 출간됐다.

영문판 이철수 禪 시리즈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는 불교를 소재로 한 심오한 영적 세계와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선화(禪畵)로 담아냈다. 특히 앉아서 열반에 든 스님의 모습을 그린 좌탈(坐脫)시리즈는 자연속에서 해탈과 성불을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다. 독문판 〈소리 하나〉는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삶의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바람의 길(석지현 저)=승려 시인인 저자의 에세이식 구도기. 인도를 비롯 네팔 버마 미국 일본 등지를 순례하며 명상센터와 명상 구루(스승)들을 만나 종교와 철학을 토론하며 느낀 사색을 간간하게 썼다.

〈민족사 5천5백원〉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우학 저)=지난 5개월간 약 6만부가 판매된 〈저거는 맨날…〉시리즈의 완결편. 고려 때 실제 인물인 회정스님과 보덕각시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소설이다. 회정스님이 보덕각시와의 인연을 통해 성불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이 소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진정한 성장을 하며 그 절대적인 사랑만이 모든 악에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인연 6천원〉

▲힌두이즘(R. C. 제너 저)=영국의 종교사학자 제너가 쓴 이 책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힌두이즘과 인도사상의 큰 흐름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저자는 힌두이즘이 전하는 메시지가 "양심 속에 깊이 놓여있는 그대의 다르마(業)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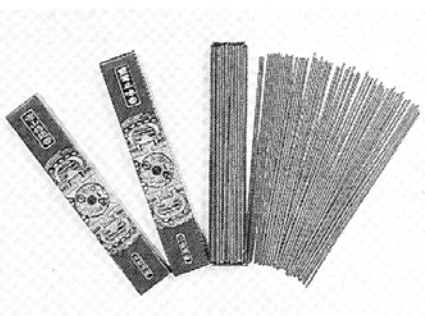
〈여래 8천원〉

▲茶의 과학과 문화(김종태 저)=차의 역사와 문화, 식물학, 세계 차 산업 현황 등 차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담은 책. 저자는 (주)태평양 건강마케팅실 실장으로 재직중인 김종태씨(한국차학회 상임이사).

〈보림사 8천8백원〉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백선' 쉽니다.

二軌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눈이 따갑거나 목이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향기는 깊고 고상합니다.
24가지 천연약재와 귀한 백단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산수도향(雪山修道香)과 영취삼매향(靈鷲三昧香)은 불자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합니다.
가까운 불교용품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02)467-6045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부적이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부자가 되는 비결부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삼재소멸 비결부
▲칼리지 않는 집, 땅, 집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꿈해몽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침묵의 소리 홍명스님 지음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명스님 지음 값 7,000원

(주)제삼의 소리 전화 : (02)444-3575, 5310 팩스 : (02)3436-1064 종로서적 전화 : (02)732-5381 팩스 : (02)732-6202

경 고 문

1996년 10월 9일자 현대불교신문(제97호)에 탈종공고를 낸 바 있는 최보살은 대승사의 주지스님과 신도들 승인 없이 창건주임을 내세워 갖은 이탈행위를 하고 있는 바, 대승사 사부대중은 물론 충남교구 산하 태고 종도들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최보살은 10년 전에 이미 창건주직을 정식으로 사임한 바 있고 현 주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지 임명을 받아 현재 충남 종무행정까지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하고 사탐한 이들이 사전에 대승사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또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고의로 대화를 회피하며 와해와 모략만을 획책하고 있어 대승사 주지와 신도, 충남 종도 모두는 통탄을 금할 수 없어 이에 엄중히 경고함과 아울러 탈종 무효공고를 낸 바 있다.

대승사 문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악한 무리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악업을 쌓고 있는 것인가를 인식하고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타종단이나 타인이 도량을 인수하려는 공작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사악한 이들의 이간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바이다.

이번 경고가 나간 후에도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사찰과 스님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의법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후로 최보살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두는 대승사 도량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1996년 10월 일

한국불교태고종 대승사(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66-2)
주지 이 운 오, 신도회장 홍 화 자, 총무 김 진 순
한국불교태고종 충남교구 89개사찰 종도 일동

구암스님 '영남범패' 첫 집대성

10여년간 수집채록 테이프 제작
불공의식·지장권공·영산작법등 수록

"재(齋)가 간소화되고 불교의 전통의식이 사라져가는 시대조류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스님들에게조차 범패가 외면당하고 있어 점차 그 원형이 잃어가는 상황이 안타까워 테이프에 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범패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영남범패가 최초로 집대성, 20개의 테이프에 담겨 그 원형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인간문화재(부산시 무형문화재 9호)인 구암스님(대한불교 법화종 종정·71세)은 영남지역에 전해내려오는 범패를 10여년에 걸쳐 수집채록한 '영남범음범패집'을 달리미디어(대표 이관암)에서 발간했다. 이 테이프에는 불공의식, 영산작법, 지장권공, 법사이운, 배송, 종성 등이 수록돼 망자를 부르고 대접하고 달래서 보내주는 전 과정을 수록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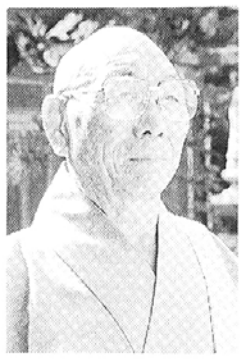


◇구암스님이 집대성한 영남범패가 테이프 20개에 집대성됐다.

구암스님은 "과연 제대로 됐는지 옷대의 모든 어장스님께는 부끄러우나 나한테 전승된 것을 매듭을 짓게 되어 다행"이라고 오랜 원력이 이루어짐을 기뻐했다.

9세기경 신라의 진감국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와 경북 남장사와 동화사를 거쳐 하동 쌍계사에서 시작된 범패는 경기 충청 전라도의 웃녁소리와 영남의 아랫녁 소리로 크게 나뉘어 구전심수(口傳心受)되어 오고 있는데, 웃녁이 고성(高聲)과 기교가 많은데 비해 아랫녁 소리는 힘이 있고 우렁차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구암스님의 범패는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라 하여 용운스님(부산시 무형문화재 1호, 73년 작고)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또다른 계보는 범성스님의 제자인 해강스님(영산작법 인간문화재·80세)으로 안정소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용운스님과 범성스님이 대산스님이라는, 같은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점으로 보아 그 원형에서 차이가 있다기 보다 사찰과 지역적 차이에 의해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구암스님은 범패전수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범음범패불교의식전문교육원'을 개원하고 전수생배출에 힘쓰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20명을 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통감해 테이프 제작이 '전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했다.

"평생동안 수련해야 함을 각오하고 배울수록 환희심이 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구암스님은 "영남범패의 전승을 위해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줬으면 하고 차후 비디오로도 제작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편 달리미디어는 빠른시일 안에 해강스님의 안정소리 녹음과 비디오 제작에 들어가 내년초 선보일 예정이며 영남범패의 소리와 작법 교과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 '김교각展' 관람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을 비롯 중국 안휘성 문화교류단(단장 악서창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25명이 내한, 지난 22일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 김교각스님展(11월29일까지)을 관람했다. 인덕스님은 이날 "한국에서 처음 열린 김교각스님展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발전하고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신라왕자 김교각스님展'을 보고

김 종 규 〈삼성출판사 회장〉

오랫만에 '聖僧의 혼' 체험

천고마비의 풍성한 계절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오래간만에 전시다운 전시를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크나큰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신라왕자 김교각은 통일신라시대 왕족으로 태어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장보살이 되어 중국불교계에서 널리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분의 존재조차 알지못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무척 뜻깊다고 생각된다. 유물의 희귀성 및 가치성의 뛰어난 점도 그렇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관람을 유도하는 전시구성이 유난히 이색적이다. 또다시 이러한 전시를 서울에서 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 정도다.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맨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지장보살 서원이다. '중생을 모두 제도한 뒤에 깨달음을 이룰 것이며 지옥이 빌 때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서원 글귀는 관람객을 압도한다.

스님의 탄생부터 수행정진,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을 각종 자료들로 정리 표현된 패널과 김교각스님 유물 및 당시 당(唐)대의 유물, 김교각스님을 칭송한 각종 희귀한 유물들이 일목정연하게 전시되어 흥미를 유도한다.

특히 등신불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풀어줄 환생부분에서는 중국 구화산에서 최근 입적(1991년)하여 새로운 등신불로 현세에 다시 나타난 자명대사의 개함과정 비디오를 방영하여 관람객 모두에게 종교적인 신비감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줘 환희심이 난다.

또한 전시 말미에서는 지난 초파일 특집으로 KBS에서 제작 방영한 '대륙으로 간 왕자' 비디오 영상자료를 방영해주고 있다. 앞의 전시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시한번 세심한 부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전시구성은 전시문화의 새로운 접근이라 생각된다.

뜰앞에 잣나무 11월3일까지 연장

10·27 재조명 성과…2500여명 관람

지난 20일 막을 내릴 예정이던 불교연극 '뜰앞에 잣나무(원담스님 작 김태수 연출)'가 11월 3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연장공연에 들어갔다. 한국불교 최근세사의 최대 치욕사건인 10·27을 소재로 해 세상사의 인연고리를 풀어본 '뜰앞에…'는 코미디, 섹스 등 가벼운 볼거리에 치우친 요즘 연극계에서 보기드문 정통연극으로 평가받으며 관객들의 꾸준한 호응을 받아 9월 14일부터 10월29일 현재 2천5백여명이 보고 간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초심호계원장 월서스님, 법타(은해사 주지) 도안(미국 LA 관음사 주지) 스님 등 종단스님들이 관람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1980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10·27법난의 최고핵심 피해자였기에 월주스님의 연극관람은 남다른 감회를 주었으리라는 관심속에 스님은 관람후 분장실로 직접 출연자들을 찾아 "연극이 훌륭했다"고 격려하고 "군부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불교계가 거절한 것이 10·27의 주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당시를 잠시 회고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뜰앞에 잣나무'를 보고나온 최정연씨(50, 중곡동)는 "10·27법난발생 16년을 맞는 오늘 이 연극을 보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아직도 뚜렷한 진상규명이 없는 채 유야무야로 세월만 보내는 차에 10·27을 통해 교계의 여러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한 '뜰앞에 잣나무'라는 연극이 나온 것만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대를 예견하는 불교문학으로"

불교문인협 26·27일 '21세기…' 주제 심포지엄

올해 '문학의 해'를 기념해 불교문학동호인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문인협회'는 지난 26~27일 춘천 삼운사에서 '21세기의 불교문학'을 주제로 제11회 문학심포지엄을 가졌다.

불교문인협회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림영창씨(불교문인협회장)가 '21세기의 불교문학' 양기봉씨(전통불교연구원 상임학술위원)가 '21세기 불교문학의 변천' 김영기씨(문학평론가)가 '통일시대의 문학혁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불교문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림영창씨는 "불교사상의 기초위에 예술적 사상 감정 상상을 표현한 것이 불교문학"이라 정의하고 "이시대의 모든것이 문학의 소재가 되는 만큼 불교문학은 이를 잘 다듬어 시대를 예견하고 이끌어가는 문학으로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봉씨는 "전생담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등 경전과 마명의 불소행찬 용수의 대지도론 등은 훌륭한 불교문학"이라 전제하고 "이같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굴해 오늘의 상상력을 가미해 발전시킨다면 시대를 초월한 불교문학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영기씨는 "분단에서 통일시대가 열리는 21세기 역사적 전환기의 모색이 곧 한국문학의 혁명적 모습"이라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21세기에 있어 민족문학이 세계적 문학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원효의 '화쟁'사상과 만해의 '님'사상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님의 침묵은 진리의 경지가 침묵임을 시사한다면, 21세기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이 지향할 바는 님의 말씀의 형상화"라고 역설했다.

이경숙 기자



◇서세옥作 '사람들'.

서세옥화백 개인전
40년 결산 화집 펴내

원로 한국화가 서세옥 화백(67)의 개인전이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고 있다.

인간을 주제로 한 이번 개인전에는 세련된 필선과 변화를 담고 있는 수묵의 조형미, 여백의 응용등 관조와 명상의 세계를 담은 수묵추상 작품 3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서세옥화백은 개인전에 맞춰 1959~1996년의 그림 138점을 수록한 화집도 펴냈다.

불미전 작품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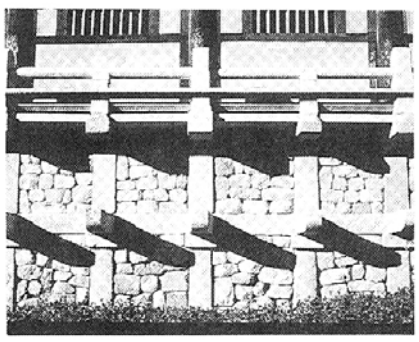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내년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에따라 주관처인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내년 1월 29일~2월 26일동안 원서교부와 2월19~2월28일 작품접수를 받는다.

이번 불미전은 탱화 불상 공예 등 △예배용(전통)불교미술과 동·서양화 공예 서예(전각) 사진 등의 △감상용(현대) 불교미술로 나뉘어 작품을 공모하며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02)735-5864

불교방송 '찬불가합창곡' CD 출시

불교방송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실시한 신작찬불가100곡 중 선곡해 엮은 '찬불가 합창곡' 1(42곡)·2집(45곡)과 CD판을 제작했다. 작곡가 김동환씨가 법회현장에서 쉽게 불려질 수 있게 편곡했으며 찬돌가 CD는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이 창단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공연실황을 수록한 음반으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지계의 노래'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20곡이 들어있다. (02)705-5301~6

문화소식



◇제1회 건축사진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불국사 석축기단'.

건축사진전 대상에 '불국사 석축기단'

불국사의 석축기단을 찍은 사진이 제1회 건축사진전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사진전에서 강신정씨(국민대 건축과 4)가 출품한 '불국사 석축기단'이 금상을, 은상은 방명세씨(정림건축)의 '지붕뚜껑'이 차지했다. 입상등 입선작들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97년 '이달의 문화인물' 초의스님 등 12명 선정

문화체육부는 내년 '97년도 이달의 문화인물로 초의스님(1786~1866)등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해당 달마다 한명씩 각종 기념사업과 행사 등을 펼치게 될 내년도의 문화인물은 다음과 같다.

△1월=송석하(민속학의 태두 1946년 국립민족박물관 창설) △2월=성현(악학궤범 편찬) △3월=최윤덕(대마도 정벌한 무신) △4월=이중환(조선후기 지리학자) △5월=초의선사(다도 정립) △6월=한석봉(서예가) △7월=이세보(조선시대 최다 시조작가) △8월=박제가(실학자) △9월=박진(연극인) △10월=장지영(한글학자) △11월=왕인(일본에 문물을 전해준 백제학자) △12월=송진우(독립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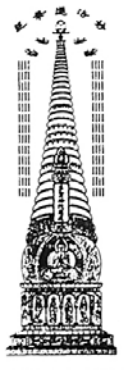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반계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탓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막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파-워침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0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인체의 경락과 아픈 자리에 눌러만 주시면 인체활성 에너지가 경락을 통해 온몸에 퍼집니다. 생명에너지(HRANYA)의 충만한 흐름으로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직접 체험해보십시요.



부드러워 집니다
맑아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지속적으로 초점방사 시킵니다. 초점 실버 포인트로 경혈, 경락을 통하게 하며 반영구적으로 제독처리된 POINT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굉장 뻐근합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땡기십니까?

가격 : 80,000원

허란야 氣 팔찌



소비자가격 45,000원
자매품 : 허란야 파-워 목걸이 30,000원(남·여공용)

天一氣功研究會
파워-침 研究學會 02) 455- 6944(대)

"10만법등 밝혀 화엄세계 염원"

화엄사 11월 5일 사리친견 회향법회…문화행사 다채

5층석탑 출토 진신사리 22과 재봉안

천년의 화엄성지 지리산 화엄사에서 10만법등을 밝힌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친견 회향법회와 함께 찬불의 문화축전이 봉행된다.

화엄사는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특별법회장에서 지난해 8월 西5층석탑을 해체 보수하던중 출토된 22과의 부처님진신사리를 다시 봉안한다. 이어 2부 찬불문화행사는 탤런트 정종준씨 사회로 한정하 유수정씨 등의 남도민요 성주풀이, 사철가, 새타령, 진도아리랑과 해금 3중주 김영재씨의 작년, 진유림씨의 승무, 차금순씨의 살풀이, 안숙선씨의 관소리 심청가가 공연된다.

3부 10만법등점등식은 오후 5시부터 화엄불교합창단의 합창과 함께 탑돌이가 거행되며 그동안 사리친견과 봉안불사에 신심과 정성을 담은 10만법등이 점등, 화엄의 연화장세계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사리친견회향법회는 지난해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 22과와 신라시대 경전을 사경한 지류뭉치등 16종 72점의 국보급 소보유물을 재봉안하기위해 1년여 동안 불사리 친견법회와 사리탑 조성 10만 법등을 밝히며 정진해온 불사이다. 이 기간동안 화엄사에는 1년여 동안 30여만명이 다녀갔으며 10만여 법등이 집수되는 등 불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주지 종열스님은 "사리친견대법회 및 10만등불사 회향법회는 화엄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불자와 전세계 불교인들이 성불과 불국토의 길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발원이다"며 "이를 계기로 화엄사를 청정수행의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대도량으로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매주 '거리법회'를 여는 글래스맨 스님이 법회에 참가한 도시빈민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앞줄 왼쪽이 글래스맨 스님.

뉴욕 빈민의 보살 글래스맨스님

79년 '…만다라' 재단 설립
제빵기술등 취업교육 실시
공동주거지 개원 30세대 상주
약물중독·에이즈환자 치료도

뉴욕의 삭막한 거리를 떠도는 도시빈민을 위해 보살행을 베푸는 스님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 글래스맨스님(뉴욕선원 원장)은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뉴욕과 같은 도시가 고질적으로 안고있는 병폐를 없애는 첩경"이라는 신념에 따라 지난 79년 '그레이스톤 만다라' 재단을 설립해 도시빈민 구제에 원력을 쏟고 있다.

이 재단은 '그레이스톤 만다라'로 불리는 공동주거지를 마련해 도시빈민들을 입주시키고 공동생활을 통해 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제빵기술' 등의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독립적인 생활거주지와 직업도 알선해 주고 있다. 이 공동주거지는 개원(開院)과 더불어 19세대 55명이 입주했으나 현재 30세대 99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레이스톤 만다라' 재단에서는 대다수 빈민들이 술·마약·에이즈 등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지난 94년부터 에이즈 환자와 약물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현재 약 2백50여명의 약물중독자와 에이즈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그레이스톤 만다라'를 방문해 치료와 재활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대다수 참여하고 있어 적잖은 포교성과를 올리고 있다.

매주 거리법회를 열어 '그레이스톤 만다라'의 공동체 삶과 재활교육에 보다 많은 도시빈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는 글래스맨 스님은 "이곳에 입주한 도시빈민이 사회적 친화감을 먼저 배우길 바란다. 이들이 배운 친화감을 사회로 전환시킬 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변혁이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방송가 소식

btn 11월1일 4차 주식공모

불교TV가 오는 11월 1일부터 제 4차 주식공모에 착수 한다.

내년 97년 2월까지 80억을 목표로 전개되는 이번 주식공모는 전국적인 불자수에 비해 저조한 불자 주주수의 증가확대, 발전기금 납입자의 주식전환, 부족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교TV는 당초 자립시까지의 기초자금을 2백50억 상당으로 계획했으나 지난 3차 주식공모때 까지 170억 상당의 자본금과 2만여명의 주주를 확보하는데 그쳐 그동안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이번 제4차 주식공모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불교TV는 24명 이사스님의 적극적 동참과 유지불자의 발굴동참, 조계종단을 비롯한 종단차원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btn, 泰스카이TV 제휴 추진

불교TV가 태국 타이스카이TV 채널 11 불교방송과의 제휴를 추진중이다.

타이스카이TV 채널 11은 지난 8월 1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일 3회순환방송을 13시간 30분 진행해오고 있어 불교TV에 이은 세계 제2의 불교TV 방송.

이에 지난 9월 부터 타이스카이TV와 교류를 추진해 온 불교TV는 지난 11일 회사의 개괄적 설명을 담은 홍보서신을 타이스카이TV측에 팩스서신으로 보내 현재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TV의 이호국장은 "타이스카이TV 채널 11은 현재 시험방송중이며 오는 연말께쯤이나 정상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불교TV와의 본격적인 교류는 내년 초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불교방송 워싱턴지국 개원

BBS 미주불교방송 워싱턴 지국(지국장 경암스님) 개설 개국축하 대법회가 지난 9월 29일 워싱턴에서 거행됐다.

이로써 미주불교방송은 목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간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동안 불교계 소식 및 교리강좌 등을 내보내고 있으며 밤 11시부터 30분간은 고승열전과 진리의 수레바퀴, 참선이야기가 방송되고 있다.

월주·지하스님 BBS 새 이사에

불교방송 제22차 이사회가 지난 18일 신라호텔 파인룸에서 개최돼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방지하스님을 이사로 선임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또한 불교방송의 사업확대와 임원 선임방법등 정관개정을 위한 개정안이 논의됐다.

'우리문화유산시리즈 1집' 출시

가야프로덕션이 '우리문화유산시리즈 제1집'을 출시했다. 이 비디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각 등을 답사해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가야프로덕션측은 "오는 98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우리민족이 꼭 알아야할 '우리문화유산'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제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속타운건립·갓바위불상 상품화등 관광특구 지정

팔공산 개발계획 문제있다

동화사·선본사 대구시에 반대입장 표명

대구광역시가 대구공항의 국제선 개통에 따른 국제적인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중인 관광개발기획안중 팔공산권 개발계획과 관련, 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관광개발기획단(단장 박병련·대구시행정부시장)이 10월 내놓은 중간보고에 따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시를 도심권, 팔공산권, 비슬산권 등 5대권역으로 나누어 총 57가지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중 도립공원 팔공산권 개발계획안에 내포된 세계종합민속타운건립과 팔공산관광특구지정 그리고 팔공산 갓바위불상의 관광상품화가 문제가 되고있다.

동화사매표소 인근에 위치한 동구 용수동 일대 8천여평에 세계의 전통가옥촌과 관광레스토랑, 각국의 전통민속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세계종합민속타운이 들어서면 동화사는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불교성지와 세계민속타운은 성격상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관광수입증대만을 노린 단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주나 설악산처럼 팔공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 역시 외국인 관광객보다 내국인 관광객유입이 많을 경우 교통체증, 부동산투기붐 조성, 불교성지의 유흥가로의 전락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단은 또 팔공산 갓바위 불상(관봉약사여래좌상)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미니어처제작(목공예) 판매, 입장요금징수를 통한 관광개발기금의 조성 등의 기획안을 내놓았다. 갓바위불상을 대구의 상징물로 부각시키고 소원성취와 연계한 홍보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갓바위 선본사측은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민공청회에도 참석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목탁소리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

3년전 이맘때

3년전 이맘때였다. 한반도는 온통 해인사가 자리해 있는 가야산소식으로 들썩였다. 前 해인총림 방장 성철스님의 열반 때문이었다. 매체마다 이땅의 어른이 육신을 버리고 떠나셨음을 알리고 애통해 했었다.

또다시 가야산이 메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기에 불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매스컴의 메뉴가 해인사 사중의 불협화음으로 바뀌었다. 고질적인 종무소와 강원의 미묘한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다. 이 갈등으로 혜암스님의 방장 및 원로회의 의장직 자진사임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확대되고 해인총림수습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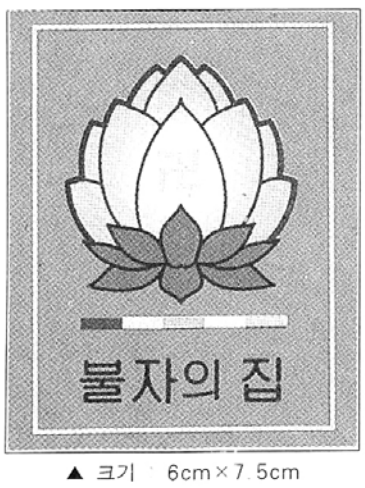
2개월이 넘는 갈등으로 해인사문제는 △주지이하 7직사퇴 △수습대책위의 공식기구인정 △방장 사임서 처리 △새 방장 추대 △검찰고발 등 난마처럼 얽혀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습대책위에 밀린 종무소측이 폭력배를 동원해 해인사를 접수한다는 풍문과 함께 해인사는 연일 철통같은 방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때로는 지역의 경찰과 소방서가 동원되기도 한다는 현지소식이다.

사중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불교의 얼굴로 표방되던 법보종찰 해인사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 불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새겨져 있는 해인사가 불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뿐이다.

주지하다시피 해인총림의 가풍인 원융화합은 부처님 가르침의 골자이다. 원당암(혜암스님 주석처)측과 해인총림수습대책위는 각각의 주장에 앞서 허물을 참회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지휘감독기관인 총무원 또한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빠른 해결을 위해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3년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배웠던 가야산이 그립다.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현불뉴스

락가사 민족화합 법회

강릉 락가사(주지 청우)는 지난 23일 경내에서 보살수계식 및 진신사리친견법회와 함께 남북 7천만 민족화합기원법회를 개최하고 무장공비남침으로 경색된 남북이 하나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보살계에는 고산(쌍계사 조실) 보성(송광사 율주) 종진(해인사 율원장)스님을 계사로 2천여명의 불자가 계를 수지했다. 이어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등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7과가 일반에 공개됐다.

855개 사찰 등급 확정

조계종 사찰등급조정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월주)는 지난 23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직지사 용주사등 8백55개 사찰의 등급을 확정했다. 이로서 1차 3백30개, 2차 2백75개 등 총 1천4백여개의 사찰등급이 확정됐다.

심사위는 금년말까지 1천7백여개의 종단산하 사찰의 등급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청강사 대웅전 낙성

경주 청강사(주지 무원)는 21일 김도용 천태종 종정을 비롯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 및 삼존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31일 선우도량 좌담회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은 오는 31일 오후 4시 현대불교 사옥 지하 녹수청산에서 '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개발문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강화 무애원 군장병 위문

강화 무애원(원장 설봉)은 지난 23일 무애원광장에서 '추계 해병대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무애원은 무장공비 침투로 준전시 상황에서 국방의무에 여념이 없는 지역 장병 6백여명을 초청, 다과회를 갖고 노고를 위로했다. 이어 진송남 김흥국 장미화 등 불자가수들이 출연해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11월 2·3일 학인대회

전국승가대학인연합(회장 부경)은 오는 11월 2, 3일 통도사에서 학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인대회에서는 '21세기의 승가교육상'이라는 주제로 논문발표회, 각 승가대학별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이 펼쳐진다.

"청소년 인성교육 절에서"

화성 신흥사 도내 85개 중·고생 수련대회 '호응'

매주 토요일 발우공양·선체조등 정서함양교육



◇인성수련대회에 참석한 경기도내 청소년들은 '인연맺기' 프로그램을 통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청소년이 되자며 인연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주지 성일스님

청소년 폭력과 탈선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가 교계 최초로 '청소년 인성수련대회'를 실시, 청소년 포교와 정서순화, 탈선 및 학교폭력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흥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도내 8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매주 토요일 1백30명을 대상으로 인성수련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발우공양, 선체조, 심성수련, 풍물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인성수련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 제공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심적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대회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폭넓게 참가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및 정서함양과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된 1일 인성수련대회를 마친 학생들의 소감문 분석결과 약 90% 이상이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화성군은 "앞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약 2만2천여명의 청소년들 모두를 신흥사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인성수련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찰이 지역사회발전의 중심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신흥사도 청소년들이 하루만이라고 산사에서 부처님의 품속에 푹 빠져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졸업특강, 3박4일 일정의 방학수련대회 등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수련대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3천일기도에 이어 오는 98년까지 두문불출하며 10년기도에 정진중인 성일스님은 '기도기간동안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게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며 "청소년 수련대회야말로 올바른 포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교육청 및 행정관청의 지도·선도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청소년 인성수련대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중근 기자

청소년 환경감시 민간기구 재정지원

문체부장관, 종교지도자 세미나서 밝혀

96년도 종교계지도자 세미나가 지난 24, 25일 서울 라마다 올림피아호텔과 경기도양주 한마음수련장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각 종교지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체육부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주최해 '청소년과 종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교지도자들은 우리사회의 청소년문제 등 공동과제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정부와 종교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모색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규제와 단속을 위해 종교계에서 민간감시활동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 재정지원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종교단체가 감시활동에 앞장서서 시민의식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종교인의 자세'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문명이 겉고 있는 이윤추구의 길을 종교마저 답습한다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적 가치기준이 모든 판단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을 때 종교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관련법 개정안 국회 상정키로

조계종 총무원-정각회 22일 모임서 논의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농지법등 불교관련 국가법령 가운데 불교계가 피해를 보고있는 법안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총무원 부장스님과 서석재 정각회장(신한국당)을 비롯한 정각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롯데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모임을 갖고 대정부관련 불교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불교관련법안의 개정문제는 불교계가 10년이상 관심을 갖고 협의해온 사안으로 이미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친 사안이다"며 불교관련 국가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회기중에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서석재회장은 "불교계가 요구하는 개정안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후 정각회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국민회의) 구천서 부회장(자민련)도 "이미 조계종이 보낸 자료 검토를 마쳤다"며 당차원에서 개정안을 상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장 원우스님은 "농지법에 따라 범어사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바람에 사찰토지를 팔아 종토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미 법원판결이 났지만 특단의 조치로 사찰토지가 망실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JTS 31일 조계사서 사단법인 설립기념식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설립 축하기념식 및 스리랑카 지역운동가 아리야타뜨네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전통사찰 50곳 '훼손 위기'

조계종 문사부 실사

전국의 조계종소속 6백92개 전통사찰중 50개 사찰이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사찰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성관)가 지난 9월 23일부터 1달간 1천6백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2백여개 사찰이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중에서 50개 사찰의 사찰환경이 위험지경에 놓여있다고 보고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찰환경 침해 유형은 자연환경 문화환경 수행환경 파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찰과 분쟁발생자와의 관계도 분쟁의 위험이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직지사 둔경봉암사의 온천개발 부산범어사 자원사의 진입로 분묘지 비행장소음 봉화 홍제암 계곡관광지개발 백담사입구 종합휴양지 조성공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새 스님 330명 탄생

제17회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이 22일~27일까지 비구 173명 비구니 157명 등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주지 목산)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22일 고불식은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과 전계대화상 청화스님을 비롯 교육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종정 월하스님법어 죽비전달 수계자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월하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혜로서 악을 그치고 선정으로 육천을 벗어나고 계법으로 깨달음을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계산림은 일주일간의 엄격한 수행생활점검을 거쳐 27일 수계식을 거행, 회향했다.

조계종 사업부 2년만에 폐지

문사부 분리등 총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산불교를 지향하며 의욕적으로 출범한 조계종 사업부가 2년만에 폐지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21일 문화사회부를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하고 사업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불교의 역할 증대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문화사회부를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 확대하고 문화부의 업무관장범위를 △불교문화예술의 진흥육성, 발굴 및 조사, 국내외 교류 △성보 및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관람료 사찰 확대지정 △종단문화행사 관장등으로 정했다. 사회부는 △사회 장 단기사업계획수립 △종단사회단체 관리 감독 △사찰 환경보존 △승려복지 △종단산하 각종 사회복지 △국제불교교류 △방송 언론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하루 한끼 굶기 捨身공양운동 전개

생명나눔실천회 11월9일 조계사서 수익금 장기기증에

불교계의 헌안 헌혈 장기기증운동을 펼치기 위해 설립된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오는 11월9일 조계사에서 '이웃을 위한 사신(捨身)공양운동'을 전개한다.

'이웃을 위한 사신공양운동'은 나의 몸을 버려서 일체생명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생명나눔실천회는 하루 한끼 굶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타행을 베풀자는 동체대비 실천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불교계에서는 초유의 일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장스님은 "개신교와 선명회에서는 이미 '금식기도' '사랑의 빵 나누기운동'의 형태로 전변화돼 있다"며 "부처님의 자리이타사상을 불자들이 몸소 실천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청년회와 조계사청년회 공동 주관으로 펼쳐지는 이웃을 위한 사신공양운동은 뇌사상태에서 장기기증의 집도상황을 보여주는 장기기증사례 비디오상영으로 시작된다. 또 '사신공양이 주는 의미와 불자의 역할'에 대한 본각스님의 강연과 촛불의식 및 탑돌이, 조계사 청년회 풍물패 한마당, 범조스님의 찬불가 공연이 이어진다.

본각스님은 "부처님의 사신공양사상이 보살의 대수고(代受苦, 남의 괴로운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 준다는 실천운동)로, 현대사회에서는 장기기증을 통해 이타행을 실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참불자상"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이번 행사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장기기증 수술비 지원 및 검사비 등으로 쓸 방침이며, 앞으로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철 경주역사

건천 유력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역사(驛舍)예정지는 경주시 외곽인 건천읍 방내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경주 새노선 선정을 위한 타당성 회의'에서 문화재와 자연경관의 보호, 도심접근용이성, 역사확보를 위한 부지규모 등을 고려 경주역사 예정지로 건천을 방내리와 내남면 덕천리로 의견을 좁혔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현지조사와 11월15일까지 제출할 이 일대의 지표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11월말 공청회를 거쳐 경주노선 및 역사 위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마음 사랑을 하려거든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이 어느 대상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만물이 평등해서 둥이 아닌데 어느 것은 사랑하고 어느 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 사랑을 하려거든 진짜 사랑을 하십시요.

〈한마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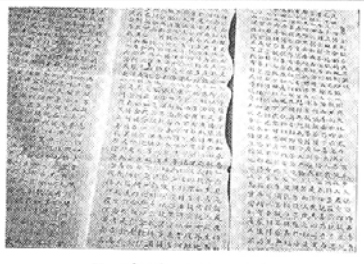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法堂 부지 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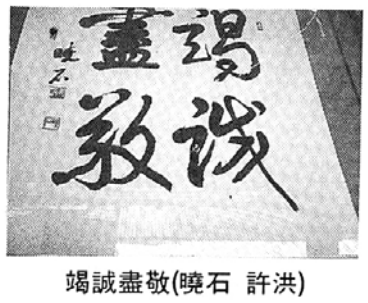
"月下 宗正 큰스님 作品 外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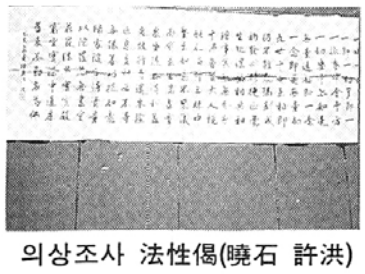
民和年豊(月下 宗正 큰스님)



금강경 8폭 병풍



竭誠盡敬(曉石 許洪)



의상조사 法性偈(曉石 許洪)

작 품 목 록

- 民和年豊(月下 宗正 큰스님)
- 詩 10폭 병풍 (月下 宗正 큰스님)
- 금강경 8폭 병풍
- 竭誠盡敬(曉石 許洪)
- 의상조사 法性偈(曉石 許洪)
- 만다라(티벳스님)

法堂 佛事를 위해 宗正 큰스님 작품외 다수를 판매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사 단 법 인
한국불교교화원 용님禪院

부설 : 선관단식 수련원

주소 :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전화 : 0593)34-1115

건강백세 ㉗

식도(食道)

식도는 밥줄을 말하는 것으로 입에서 씹혀진 음식물이 위로 전달되는 통로부분이다. 음식을 삼킬때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본능 중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중의 하나이다. 식욕을 느껴서 목적한 음식물을 먹어 삼킬때의 만족감은 또다른 쾌감이다. 연하작용(嚥下作用)이라고 불리우는 삼켜내리는 작용은 자동적 수축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누워서 콩먹기"라는 말은 매우 쉬운일을 말할때 사용되지만 기실 음식을 잘 삼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다. 적절한 크기와 수액(水液)이 있어야만 제대로 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막힘은 의외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도 곧장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가루음식이나 껌 등으로 기도(氣道)가 막히거나 식도에 걸려서 연하불능으로 졸지에 큰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땔이 몸을 움츠리며 이동하는 것처럼 식도는 리드미컬하게 음식물을 밀어내리는데 너무 급히 먹어서 경련이라도 일으키면 딸꾹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직을 일으켜서 그대로 막혀 버리기 때문이다. 잘 익지않은 떫은 감이나 바나나 등은 식도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 목이 메이는 느낌을 주거나 실제로 막힐 수가 있다. 떫은 감을 먹어 목이 막힐 때에는 등을 두드리기 보다는 된장을 먹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신통하게 느끼도록 효과를 본다. 된장의 유화력(乳化力)과 짠 맛은 타액분비를 촉진시켜 식도 윤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입지 않은 음식을 크게 많이 삼키는 경우에도 목이 막힐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곱게 씹어 먹어야 한다.

흔히 감기 등으로 인해 가래가 막혀서 애를 먹기도 한다. 항상 식도 안에 무언가 끼어 있는 느낌을 갖게 해 불편하고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다. 매핵기(梅核氣)라 해서 식도에 이물감(異物感)을 느끼는 경우이다. 이것은 신경성 질환의 일종으로 흔히 히스테리칼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삼켜도 내려가지 않고 뱉어 버리려 해도 나가지 않는(咯之不出) 특이한 증세를 갖는 이 증상은 가래모양의 점액성분비물(粘液性分泌物)이 인후지간(咽喉之間)을 막아서 생기는데 주로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적에 상체에 열을 받아 훈증(熏蒸)되어 발생할 수 있다. 가미사칠탕(加味四七湯)이



나 개기소담탕(開氣消痰湯)등의 약으로 잘 치료되어 한방의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추운 겨울에 따근한 홍차나 커피를 한 잔 하는 맛은 일품이다. 그러나 따근한 차를 그냥 식도로 넘기면 식도나 위점막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서 의외의 질환으로 이행되는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위궤양 발생원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식도나 위부분에는 허나 입안보다 신경의 분포가 드물어 화상을 입어 후텃한 것을 속이 훈훈한 것으로 착각 하는 수가 많다. 미지근하게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오히려 차게 마시는 편이 화상도 예방되고 신선미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도가 촉촉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넘고 감싸안는 마음을 갖는것도 중요한 건강법중 하나이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많이 씹어야 목막힘 예방
뜨거운 차 급히 마시면 화상

마음에 쓴 금강경 ③·〈끝〉

주부신행담

마음과 마음에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들이 가족을 훈훈하고 넉넉하게…

나의 제의에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좋아. 어디 한번 해 보자구."

나는 남편과 내기를 걸고 바로 사경에 들어갔다. 금강경의 의미를 다 알 수야 없었지만 사경책에 적힌 내용들을 읽으며 한자한자 써 나갔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남편과 내기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 제대로 사경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스님은 "마음을 모두 비우고 편안히게 한자한자 써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빨리빨리 써 나가는 일이 더 급했던 것이다.

나는 하루에 한 권씩 쓸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집청소하고 대충 하루 일곱시간 이상 사경할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경을 하는 내 마음이었다. 그건 사경이 아니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았다. 한권을 쓰고 나면 108배를 하는데 절을 하면서도 그냥 108번을 채우려는 욕심밖에 없었다. 후회했다. 남편을 향해 부질없는 내기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달리기 선수처럼 사경책의 빈칸을 메워 나가야 했다. 자존심의 문제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더러 "오늘은 얼마나 진도가 나갔나."라며 점검을 했고 그때마다 "열려마세요. 내기는 내가 이길 것이니까."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아이들도 엄마편에서 응원을 해 주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은 여전히 '이게 아닌데'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아무튼 일주일이 지났고 나는 이겼다. 남편은 "약속은 지켜야지."라며 사경에 관심을 보였다. 나는 사경을 하는 마음자세를 일러 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자한자 쓰면서 받들어 모시고 그 가르침의 공덕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를 쓰는데만 얽매여서도 안되고 글자를 익히는데만 얽매여서도 안되는 겁니다."

남편은 나의 설명을 듣더니 나에게 넌지시 한마디 던졌다.

"그럼 사경으로 내기를 하는 것은 큰잘못 된것인가?"

기어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공격해 들어 오는 남편 앞에서 나는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야 했던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은 남편의 큰 웃음과 아이들의 격려로 봄눈처럼 녹아 버렸다. 가족의 뜨거운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집은 사경도량이 되었다. 남편도 갈수록 진지해졌고 아이들도 정신집중이 잘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사경을 열심히 했다. 나는 나를 법당으로 이끌었던 친구에게 우리집의 사경바람이 얼마나 훈훈하게 불고 있는지를 자랑했고 그 친구는 "우리도 아직 그렇게 못하는데…"라며 참 잘된 일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사경 시간을 정했다. 이날은 남편도 일찍 들어와 동참하니까 가족법회 시간이 되어버렸다. 서로 아무말 없이 사경책을 펴들고 한자씩 부처님 말씀을 써나가는 시간동안 우리 가족은 오히려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에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족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책에다 사경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다 (반야심경)도 새기고 (금강경)도 새긴다. 그런 시간을 통해 가족애를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이다. 처음 절에 가던날의 어리둥절하던 내 모습이 새삼스레 떠 오르면 지금의 우리집 분위기와 대조하며 웃을 따름이다.

최 선 덕 행
〈서울 노원구 중계동〉



그림 · 이준석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㊿

Alavakasutta
알라바카경전

♦ What in this world is the best property for a man? what being well done conveys happiness? what is indeed the sweetest of sweet things? how lived do they call life the best?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Bhagavat said: Faith is in this world the best property for a man; Dhamma, well observed, conveys happiness; truth indeed is the sweetest of things; and that life they call the best which is lived with understanding.

스승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진리를 잘 따르면 안락을 가져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 Alavaka said: How does one cross the stream of existence? how does one cross the sea? how does one conquer pain? how is one purified?

알라바카 야차가 묻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삶의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 Bhagavat said: By faith one crosses the stream, by zeal the sea, by exertion one conquers pain, by understanding one is purified.

스승이 대답하셨다.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써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써 완전히 청정해진다.

*alavak (빠알리어) 부처님을 유혹했던 야차.
*dhamma (빨알리어) 진리, 법
*existence (n) 삶, 생활, 존재
*exertion (n) 노력, 분발, 정력

오중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열흘밤의 꿈 ②
나쓰메 소세키 作

나무를 떡주무르듯 깎아 仁王을…"나도 해 봐야지"

웅케이(雲慶)가 호국사(護國寺) 산문(山門)에서 인왕(仁王:부처님 이름)을 조각하고 있다는 소문이어서, 산보 겸 가보니, 나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창 품평들을 하고 있었다.

웅케이는 구경꾼들의 평판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끌과 쇠메를 움직이고 있다. 한 번도 돌아다 보는 일이 없다. 높은 발판 위에 올라서서 인왕 얼굴 근처를 열심히 파나가고 있다.

웅케이는 머리에 조그마한 두건 같은 것을 쓰고 헐렁거리는 소맷자락을 등 뒤에 매고 있다.

그 모양이 아주 고풍스럽다. 떠들썩한 구경꾼들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어째서 자금까지 웅케이가 살아 있는가고 생각했다. 정말 묘한 일도 다 보겠다 생각하며 여전히 서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웅케이 쪽에서는 이상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양 그저 열심히 조각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고개를 쳐들고 이 태도를 바라보고 있던 한 젊은 사나이기 나를 돌아다보고, "과연 웅케이는 다르군. 안중에 우리들은 안 보이는 모양이야. 천하의 영웅은 오직 인왕과 자기가 있을 뿐이라는 태도다. 참으로 훌륭하다."하면서 칭찬이 자자하다.

나는 이 말을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웅케이는 지금 굵은 눈썹을 한 치 높이로 가로 파내고, 끝날을 세로 찢히자마자 비스듬히 위에서 쇠메를 내리쳤다.

단단한 나무를 떡 주무르듯 깎아, 두꺼운 나뭇조각이 쇠메 소리를 따라 튀어나자, 코 끝이 약간 들린 메부리코의 한 측면이 당장에 부각(浮刻)되었다. 그 끌로 파내는 솜씨는 여간 대담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조금도 거침없이 보였다.

"정말이지 저렇게 아무렇게나 끌을 써가지고 뜻대로 눈썹이나 코를 만들다니!"하고 나는 너무나도 탄복한 나머지 이렇게 혼자 중얼댔다. 한 사나이가 말했다.



그림 · 심민섭

"필요. 저건 눈썹이나 코를 끌로 파낸 것이 아니지요. 저대로의 눈썹과 코가 나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끌과 쇠메의 힘으로 파낸 것뿐이지요. 마치 흙 속에서 돌을 파내는 것과 마찬가지니 결코 실패할 염려는 없지요"하고 말했다.

나는 이때 비로소 조각이란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과연 그렇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래서 갑자기 나도 인왕을 조각해 보고 싶어져서 곧 집으로 돌아왔다.

연모 상자로부터 끌과 쇠메 등을 끄집어내어, 뒤꼍으로 나가보니, 며칠 전 폭풍으로 쓰러진 딱갈나무를 장작으로 할 셈으로 톱으로 잘라놓은 적당한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중 제일 큰 놈을 골라 신바람이 나서 파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인왕을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 다른 나무에서도 운수 나쁘게 발견하지 못했다. 세 번째 나무에도 인왕은 들어 있지 않았다.

나는 쌓여 있는 장작을 모조리 파보았는데 어느 하나도 인왕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는 없었다. 마침내 메이지(明治) 시대의 나무에는 인왕이 파묻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웅케이가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이유도 대강 이해가 갔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불교TV 개국특집
1 솔가 새로운 탄생
수계산림과 참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불보종찰(佛寶宗刹) 통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처절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2 영상포엠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미. 정제된 카메라앵글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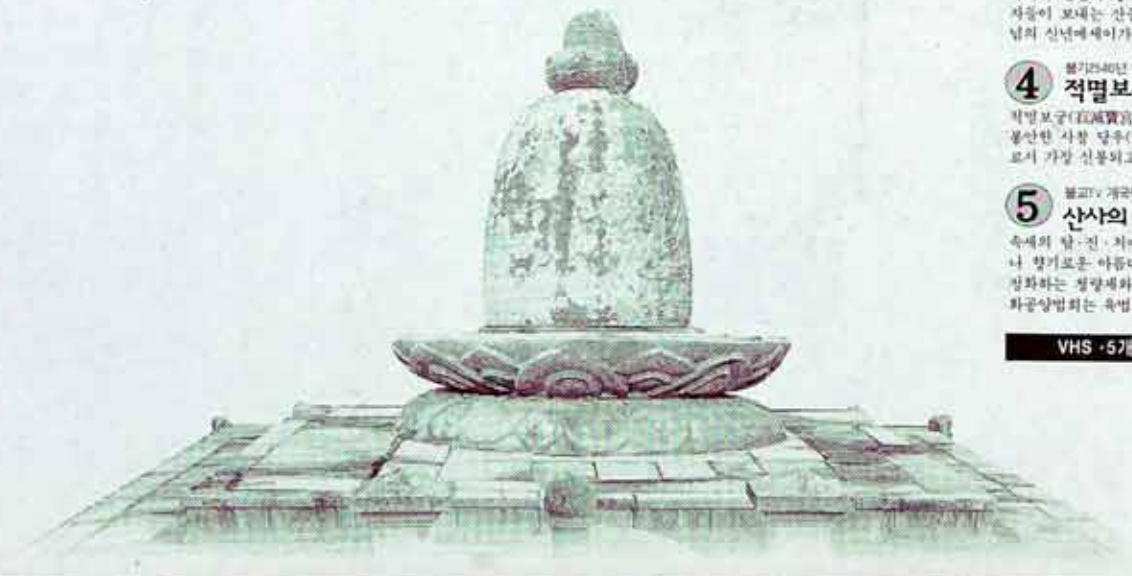
불기2539년 신도합심예세이
3 산중편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통도(通道)를 구하는 이땅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네분 스님의 신년에세이가 눈덮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불기2540년 설빈칠특집
4 적멸보궁을 찾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교조(敎祖)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설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불교TV 개국특집
5 산사의 향음 · 만등만화공양법회
속세의 탐·진·치에서 벗어나 고고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모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청량제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만등만화공양법회는 육법공양의식 중계방송을 녹화한 것이다.

VHS -5개 1SET/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btn 불교 TV 영상홍보사업단
TEL:(02)3272-0781~5/706-3502~5